

23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4990.07 (+37.54)		993.93 (+23.58)
	금리 (미국재 3년)		환율 (원·달러)
	3.137 (+0.028)		1462.50 (-7.40)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빌 게이츠 테라파워 회장과 만나 에너지산업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HD현대 인스타그램

다보스 찾은 총수들 AI·탈탄소 협력 모색

국내 산업계가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을 무대로 인공지능(AI)·탈탄소·공급망 재편 등 주요 화두를 놓고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20~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6 다보스포럼’에는 각국 정상과 장관, 국제기구 수장, 글로벌 기업 CEO 등 약 3000여명이 참석했으며 국내에서는 정기선 HD현대 회장, 장인화 포스코 그룹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이 주요 행사와 면담 일정에 참여했다.

HD현대 정기선, 4년 연속 참석
팔란티어 CEO·빌 게이츠 회동

포스코 장인화, 탈탄소 전환 논의
HS효성 조현상, 공급과잉 등 점검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4년 연속 다보스를 찾았다. 정 회장은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CEO와 만나 협력 범위를 그룹 전반으로 넓히는 방안을 논의했다. HD현대는 지난 2021년부터 팔란티어의 빅데이터·AI 플랫폼을 도입해 왔으며, 이번에는 적용 대상을 HD현대일렉트릭·HD현대로보틱스·HD현대마린솔루션 등 주요 계열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 회장은 에너지 분야에서도 글로벌 파트너십을 점검했다. 빌 게이츠 테라파워 회장과 회동해 SMR(소형모듈원자로) 공급망 확대와 상업과 협력을 논의했다. HD현대는 지난 2022년 테라파워에 약 3000만달러를 투자한 데 이어, 2024년 나트륨 냉각형 SMR에 탑재될 원통형 원자로 용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해에는 SMR 상업화를 위한 제조 공급망 확장 협약을 맺으며 협

력을 확대해 왔다.

철강 분야에서는 탈탄소 전환과 원료 공급망 이슈가 전면에 올랐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마이닝 앤 메탈스 거버넌스 미팅’에 참석해 글로벌 철강사·원료사 CEO들과 철강 탈탄소 전환과 공급망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포스코그룹은 현장에서 ‘포스코 파빌리온’을 운영하며 주요 기업인들과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하고 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철강 기술을 홍보했다.

소재·화학 업계는 공급과잉 우려와 지정학 리스크를 주요 변수로 짚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화학 거버넌스 미팅’에 공식 초청돼 바스프(BASF)·다우(Dow)·사빅(SABIC) 등 글로벌 화학기업 CEO들과 중국·중동 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과잉 리스크와 지정학 변수 대응을 논의했다. 포럼 기간 캐나다 재무장관, 인도 마하라슈트라 주총리와도 면담해 북미·인도 공급망 및 투자 협력을 협의했다.

자원·에너지 분야에서도 공급망이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공식 세션에서 핵심광물 공급망의 편중 리스크와 장기 수요 예측 기반 민관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세홍 GS칼텍스 부회장도 현지에서 에너지 기업들과 만나 에너지 전환과 공급망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팔란티어는 세계적인 AI 기반 분석 역량을 갖춘 파트너로, HD현대가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보스에서 제시된 AI·탈탄소·공급망 전략이 각 기업의 구체적 투자로 이어질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metroseoul.co.kr

“숫자에 자만 말라”… 경쟁력 회복 주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임원 세미나
선대회장의 ‘샌드위치 위기론’ 언급
미중 무역전쟁 등 ‘변수 경계’ 메시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임원들에게 교만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부터 꺾임실적을 기록하며 눈부신 실적을 올리고 있지만 미중 무역전쟁 등 외부 변수에 대비해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임원 대상 세미나에서 이재용 회장은 “숫자가 좀 나아졌다고 자만할 때가 아니다”라며 경쟁력 회복을 주문했다. 삼성은 지난주부터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 계열사의 부사장 이하 임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삼성다움 복원을 위한 가치 교육’을 진행 중이다.

이 자리에서는 이진희 선대회장의 경영 철학이 담긴 영상이 상영됐는데, 이달 초 이재용 회장이 소집한 삼성 계열사 사장단 만찬 자리에서 처음 공개된 것이다. 선대회장의 주요 발언과 인공지능(AI) 등 올해 경영 전략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0월 31일 APEC 정상회의 장소인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젠스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접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 영상에는 이진희 선대회장의 ‘샌드위치 위기론’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지금도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달라진 건 경쟁 구도가 바뀌었고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격화되면서 이에 따른 현재 상황에 대한 메시지도 담겼다.

앞서 이진희 선대회장은 2007년 “중국은 쫓아오고 일본은 앞서가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샌드위치 신세”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재용 회장도 이 표현을 통해 구조적 위험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주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 부진으로 2023년부터 줄곧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난 8월 공개된 잠정 실적에서 지난해 4분기 매출액 93조원, 영업이익 20조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재용 회장은 단기 실적보다 기술 경쟁력 회복을 강조하며 근본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 기회’라는 표현 역시 임원들에게 더욱 강도 높은 실행력과 각오를 요구한 대목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임원들에게는 각자의 이름과 함께 ‘위기를 넘어 재도약으로’라고 새겨진 크리스탈 패드 수여했다.

삼성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임원의 역할과 책임 인식 및 조직 관리 역할 강화를 목표로 순차 진행되고 있다. 삼성은 지난해 전 계열사 임원 대상의 세미나를 2016년 이후 9년 만에 재개했으며, 앞서 2009년부터 2016년까지는 매년 임원 대상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양성운 기자 ysw@

M-커버스토리

수요는 쏠리는데 대출 옥죄는 2금융권

서민들 ‘금융 사다리’ 부족

대출규제 동참… 연체율 압박
여신규모 줄어 수신 역시 축소
‘자금중개 기능 약화’ 악순환

서민들의 자금조달 창구인 ‘제2금융권’의 자금 중개 기능이 위축되고 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여파로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쏠리는 가운데 정작 저축은행·카드사는 연체율 관리 때문에 대출을 줄이고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서민의 ‘금융 사다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대출수요, 1금융→제2금융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10월 1조4000억원, 11월 2조3000억원, 12월 7000억원 늘어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 등 제1금융권은 10월 3조5000억원에서 12월 마이너스(-) 2조2000억원으로 급격히 꺾였다.

제2 금융권에서는 10월과 11월에 대출 수요 확대 흐름이 뚜렷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저축은행(-2000억

원→-400억원)은 가계대출 감소 폭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여전사(2000억원→4000억원)와 상호금융(1조 2000억원→1조 4000억원)은 증가폭이 커졌다. <관련기사 3면>

1금융권이 대출문턱을 높이자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정부는 대출규제 강화 기조 속에 시중은행을 상대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축소를 유도해 왔다. 금융당국은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감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강도 높은 관리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 2금융, 수요 늘었지만 여신 영업 축소

대출 수요는 쏠리고 있지만, 정작 제2금융권은 대출 고삐를 죄며 공급을 줄이는 모습이다. 제2 금융권 역시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기조와 연체율 관리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한 탓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가계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은 지난해 6·27 가계대출 규제 도입 이후 4개월 연속(7~11월) 8000억원대에 머물렀다. 매년 1조원을 상회하던 예년 수준을 밑도는 규모다.

저축은행은 수신 기능도 축소했다. 실제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저축은행 예수금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약 99조원으로 반년 만에 100조원 밑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9월부터 약 105조원이었던 예수금 잔액이 10월 말 103조원, 11월 말 100조원으로 지속 감소하다 12월 말 99조원대까지 떨어진 것.

결국 전체 외형이 축소되면서 자금 중개 기능이 약화되는 모습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 기조에 따라 여신 규모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수신을 공격적으로 늘리면 저축은행 입장에서 이자 비용만 나가는 상황이 된다”면서 “여신 영업이 활발하지 못하네 수신을 굳이 늘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카드사 사정도 다르지 않다. 카드사들은 최근 카드론 관리 강화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기조에 발맞춰 본격적인 총량 관리에 돌입했다. 실제 카드론은 10월 42조751억원, 11월 42조5529억원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 12월 42조3292억원으로 꺾이면서 전달 대비 0.53% 줄어들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이 대통령, ‘스캠 범죄피의자 역대 최대 규모 송환’에 “격려 방문 해야겠죠”
▲이 대통령 “정치테마 된 코스피, 한편으로 안타까워”
/사진 뉴시스

▲김 총리, 경기 포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차질 없는 방역” 지시
▲與, 쿠팡 차별 논란에 “한미 동맹 신뢰로 강화… 국익은 원칙으로 지켜야”

▲국힘 “장동혁 대표 회복치료 집중”…우원식의 장 병문안
▲국힘 “與 공천뇌물, 김현지 연루 정황까지 드러난 구조적 비리 의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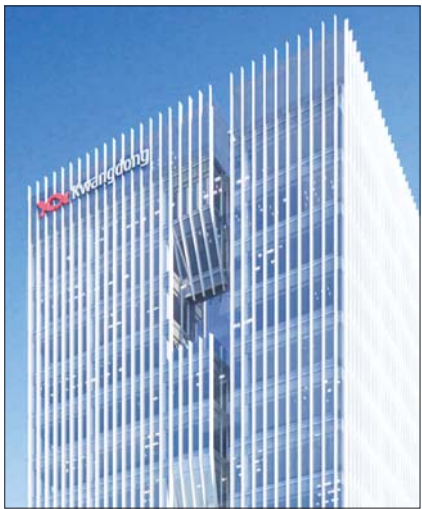
광동제약, 부당 내부거래 ‘무혐의’ 경영활동 ‘사법리스크’ 해소 국면

공정위, 부당 내부거래 사건 종결
대법원 ‘NIP 백신 입찰담합’ 무죄
업계 “대내외 불확실성 줄어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광동제약을 상대로 진행해 온 부당 내부거래 혐의 조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조사 착수 후 약 2년여 만이다.

23일 법조계와 제약업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광동제약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에 대한 관계당국의 조사결과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아 별도 제재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3년 9월 윤석열 정부 당시 당국은 중견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명목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에 들었던 대표적인 기업이 오투기와 광동제약. 감독당국은 언론을 통해 조사 착수 사실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



광동과천타워

/광동제약

에 돌입했고, 약 한 달 뒤에는 또 다른 제약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며 단속에 나섰다.

당시 한기정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자회견담회를 통해 “중견집단은 제약, 의류, 식음료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며 “시장 지배력이 높은 중견 집단의 부

당 내부거래에 대해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국은 광동제약에 대해 현장조사와 함께 계열사 간 거래구조와 정당성 여부, 가격 산정기준 등을 중심으로 장기간 조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혐의점이 없어 최근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된다. 본지는 광동제약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광동제약은 최근 정부의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입찰담합 혐의 형사소송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해당 입찰이 구조적으로 실질적인 경쟁이 어려웠고, ‘둘러리업체’ 참여 역시 절차적 요인 등에 따른 것이었다는 2심 무죄판단을 유지했다.

제약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광동제약을 둘러싼 주요 법적 쟁점이 종결됨에 따라 그간 경영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사법리스크와 관련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lee@metroseoul.co.kr



인천공항공사, 지난해 역대 최대 운송실적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출국 수속을 기다리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중국, 일본 노선 항공수요 증가세에 힘입어 2025년 여객실적 7407만 1475명, 운항실적 42만 5760회를 기록해 지난 2001년 개항이후 역대 최대 항공운송 실적을 달성했다고 이날 밝혔다.

/뉴시스

李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재연장 없다”

종료 전 매매는 중과 유예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의 추가 연장과 관련해 “재연장 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오산”이라며 유예 조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다만 시장 혼란을 고려해 유예 종료 전까지 계약한 매매는 중과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은 예측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5월 9일 종료는 지난해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비정상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선 안 된다”며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우려하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상법개정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냐”며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 들지만 수술한 건 수술해야 한다”며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하고, 돈도 더 잘 벌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받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했다. 시장 혼란을 고려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으나,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주택 매매 활성화’ 취지로 시행령을 개정해 유예한 뒤 1년 단위로 연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 연장 조치를 없애고, 제도의 정상적 시행을 약속한 셈이다.

/서예진 기자 sy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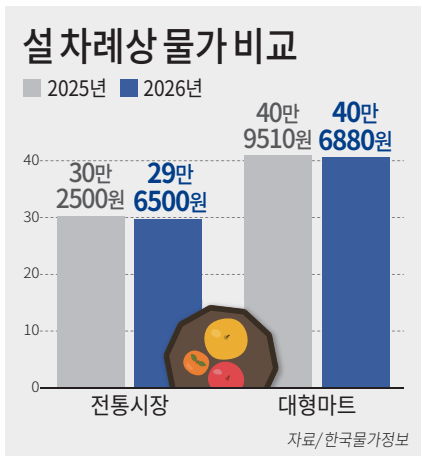
4인 가구 차례상 비용 29.6만원~40.6만원

과일·채소 등 전년대비 물가 하락
수산물·가공식품 중심 가격 상승

매년 명절마다 최고치를 경신해오던 설 차례상 물가가 올해는 소폭 하락하며 상승 흐름이 다소 완화된 모습이다. 다만 품목별로는 가격 흐름이 엇갈리며 체감 부담에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격조사기관 한국물가정보가 설을 3주 앞두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약 29만6000원, 대형마트는 약 40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와 비교해 소폭 낮은 수준이다.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최근 수년간 명절마다 차례상 비용이 가파르게 올랐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물가 상승세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품목별로 보면 과일·견과류와 채소류가 전체 비용 하락을 이끌었다. 지난해 차례상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꼽혔던 과



일류는 올해 출하 여건이 개선되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대표 품목인 배 가격은 전년 대비 약 33% 내려갔고, 대추 역시 기상 여건 호조로 생산량이 늘며 약 25% 하락했다. 배추와 무 등 주요 채소류도 김장 이후 공급이 안정되고 수요가 둔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약 15%가량 가격이 내렸다.

반면 수산물과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한 기타 품목은 가격 부담이 이어졌다. 조기와 동태 등 수입 비중이 높은 수산물은 환율 상승의 영향을 받아 수입 원

가가 오르며 소비자 가격에 반영됐다. 어획량보다는 환율 등 외부 요인이 가격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쌀값 상승이 제조 원가로 이어지면서 떡 등 쌀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가격도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은 전반적으로 큰 변동 없이 보험세를 유지했다. 다만 갈비나 등심 등 명절 선물세트 수요가 높은 품목의 경우, 사료비와 물류비 부담이 누적되고 있어 향후 가격 변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닭고기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여부에 따라 가격 흐름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물가정보 이동훈 팀장은 “올해 전통시장 기준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지며 전반적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최근 한파가 이어질 경우 기온에 민감한 채소·과일류를 중심으로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공정위, KT ‘전상법 위반’ 과태료 부과

S25 시리즈 사전예약 기만적 행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예약 과정에서 제한된 물량을 숨긴 채 소비자를 유인한 혐의로 KT에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KT가 2025년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실시한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예약을 지니TV 및 오라잇스튜디오에 게시된 배너와 연결된 사이버몰 이벤

트 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서, 실제 공급 물량이 제한돼 있음에도 예약한 소비자 모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한 행위가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해당 이벤트 페이지에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했다. 그러

나 1월 25일 오전 8시 배너를 통한 사전예약 접수를 중단했고, 같은 날 오후 5시 당일 0시 이후 접수된 7127건을 취소했다.

공정위는 KT에 대해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 납부를 의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통신사의 사전예약·이벤트 판매 과정에서 전자상거래법 준수를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李, 이혜훈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

靑 “국민 눈높이 부합하지 못해”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6면>

이로써 지난해 12월 28일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 후보자는 지명 한 달여 만에 낙마했다. 이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결정한 것은 지난해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후 두 번째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3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

와 함께 대통령의 결심으로 맺어질 수 있다”며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령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시도한 ‘탕평 인사’는 실패로 돌아갔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상대 진영에서 바로 발탁한 상징적인 인사에 지명 철회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를 지명할 때 야당의, 다른 정당의 보수 진영에 계신 분을 모셔 온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적 눈높이와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함으로 인해 장관 취임까지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일부 부분에 대해 후보자가 소명한 부분이 있고, 소명이 국민적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여러 사안을 고려한 것이 특정 사안 한 가지에 의해 지명 철회가 이뤄진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대출절벽에 몰린 저신용자… 대부업 막히면 불법사채 ‘우려’

m-커버스토리 ‘고금리 늪’

2금융권 대출 축소로 취약층 이동
대부업 이용자·잔액 다시 증가세
조달금리 내려도 대출금리는 올라
전문가 “공급 축소만으론 해법 아냐”

제2 금융권까지 대출 공급이 줄어들자 취약차주들이 금리(법정최고금리 연 20%)가 높은 대부업권으로 내몰리고 있다. 문제는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이 거부되면 사채시장으로 밀려나는 것이다. 일부 대부업체들이 신용대출 공급을 늘리면서 제2금융권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지만 여전히 서민금융을 떠받치는 것은 역부족이다. 전문가들은 저신용자를 상대로 무작정 신용 공급을 축소하는 것은 해답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 대부업 이용자·대출잔액 ↑

25일 금융당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대부업 이용자수는 71만7000명으로 지난 2024년 말 대비 9000명 증가했다. 지난 2022년 말 98만9000명에 달했던 이용자수가 2023년(72만8000명), 2024년(70만8000명) 하락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대출잔액 역시 증가했다. 대부업 대출잔액은 2025년 6월말 12조4553억원으로 2024년말 대비 1205억원 증가했다. 지난 2024년 상반기 12조2000억원까지 내려



금융권 대출규제로 취약차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이 서울 시내 한 금융기관 대출 광고 현수막 앞을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왔던 대부업 대출잔액이 지난해 하반기(12조3000억원)를 기점으로 다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이 8조309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4년 말과 비교하면 2625억원 증가한 규모다. 대부업체 수도 덩달아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등록 대부업자 수는 8293개로, 같은 기간 21개 증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2022년 이후 대부잔액이 지속 감소하다가 2024년 하반기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신규대출 취급 현황 등 대부업권의 저신용자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서민 금리 부담 여전

이처럼 대부업권의 몸집이 커지는 배경은 조달금리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24년을 기점으로 조달금리가 하락하면서 대형 대부업자 중심으로 신용대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준금리는 지난 2021년 말 1%에서 2022년 3.25%, 2023년 말 3.5%까지 치솟다가 2024년 3%, 2025년 2.5%까지 떨어졌다.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면서 수익성이 개선되자, 대부업 시장에 새로 뛰어들거나 영업을 재개하는 곳이 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대출 금리다. 대부업자들의 자금 조달 비용 여건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대출 금리는 오히려 상승했다.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 2022년 말 14.7%에서 2023년 말 14.3%, 2024년 말 13.9%까지 떨어지다 지난해 상반기 처음으로 14.0%로 상승 전환했다.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인하했던 2021년 이후 약 4년 만이다.

대형 대부업체들이 낮아진 조달 비용을 바탕으로 대출 공급을 늘리고는 있지만, 제2금융권마저 넘지 못한 취약차주들은 여전히 고금리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대부업체에서 밀려난 서민들이 불법 사채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다. 전문가들은 현 최고금리 체계와 대부업 기능 악화가 신용점수가 낮거나 금융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을 불

법 사채 시장으로 내모는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 “신용 공급 축소만이 해답 아냐”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두고 금융권의 신용 공급 축소가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오테록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 연구위원은 “유동성 공급은 연체 위험에 미칠 중장기적 영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주 기반의 미시적 자료를 통해 가계부채 연체의 주요 원인을 살펴본 결과,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과 별개로 자금 융통 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점이 특히 저신용 차주군을 중심으로 확인됐다”며 “금융기관이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신용 공급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차주들의 연체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밝혔다.

오연구위원은 은행업권의 연체율 지표와 사회 구성원의 실제 경제 여건을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연체율은 업권 관점에서 자산의 부실화 정도를 나타내며 전반적인 차주의 상환 여건 및 실물경제의 건전성을 대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연체율이 낮아지면서 금융업권의 건전성은 개선되더라도, 이는 상당 규모의 금융 배제자가 발생한 결과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소비위축 등 자영업자 5년만에 ‘최대 감소’…하나금융그룹, 생산적 금융 17.8조로 확대

총 562만명, 1년 새 3만8000명 줄어
고금리·인건비 상승·내수부진 겹쳐
청년 3만 명 넘게 감소하며 타격 집중

지난해 국내 자영업자 수가 최근 5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29세 이하에서 전년대비 3만 명 넘게 줄어드는 등 청년층 감소가 두드러졌다.

25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는 총 562만 명으로 집계됐다. 2025년도 자영업자 수는 2024년보다 3만 8000명 줄면서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래 5년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자영업자는 2020년에 -7만5000명, 2021년에 -1만8000명을 기록한 뒤 2022년 +11만9000명, 2023년 +5만7000명 등 회복세를 나타내던 바 있다. 하지만 2024년(-3만2000명)에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엔데믹 전환 이후의 고금리 기조, 인건비 상승, 내수 부진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가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등 내수 진작에 나섰으나, 이미 위축된 자영업 경기를 되살리기에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청년층 타격이 컸다. 지난해 15~29세 자영업자는 15만4000명으로 1년 만에 3만3000명이나 감소했



서울의 한 상가 건물에 ‘임대문의’ 문구가 나붙어 있다. /뉴시스

다. 2023년(-2만2000명)과 2024년(-3000명)에 이어 3년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30대도 63만6000명으로 3만6000명 줄었다. 30대 역시 2023년 -1000명, 2024년 -3만5000명 등 3년째 줄고 있다.

15~29세 자영업자는 숙박·음식점업을 비롯해 배달라이더 등이 포함된 운수창고업에서 많이 감소했다. 30대에선 운수창고업, 도소매업 감소가 많았다.

40대는 3000명, 50대는 3만4000명 줄었다. 이에 반해 60세 이상은 6만8000명 늘어난 216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2016년 이후 10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60세 이상 증가 폭은 2022년 11만3000명에서 2023년 7만5000명, 2024년 2만3000명으로 둔화하다가 지난해 다시

확대됐다.

국세통계에서도 청년 창업자 수는 2021년 39만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35만 명으로 감소를 기록했다. 청년의 창업 관심 업종은 전통적인 서비스업 중심에서 디지털·콘텐츠·온라인 산업 중심으로 바뀌는 추세다.

온라인 마켓 등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하고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전자상거래업, 해외직구대행업,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등 온라인 기반 사업의 지속적인 확장세가 나타났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과 광고대행업 등 플랫폼기반 업종도 청년창업 관심 업종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그룹 생산적 금융 협의회 출범

당초 계획보다 1.6조 늘려 운영

하나금융그룹이 생산적 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하나금융은 지난 23일 ‘그룹 생산적 금융 협의회’를 출범하고, 2026년 생산적 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계획 대비 1조 6000억원 증액된 17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기존 방식을 완전히 탈바꿈해 자금 흐름을 미래성장·혁신분야로 이전하고, 그룹의 대전환을 통해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첨단·벤처·혁신기업 및 지방 발전 등 생산적 투자로 집중하기 위한 실행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하나금융은 그룹 생산적 금융 협의회를 통해 2026년 생산적 금융 공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1조6000억원 증액된 17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세부적으로 ▲첨단인프라 및 인공지능(AI) 분야 2조5000억원 ▲모험자본·지역균형

발전 등 직접투자 2조5000억원 ▲경제성장전략을 반영한 핵심 첨단산업 242개 업종 10조원 ▲K·밸류체인·수출공급망 지원 2조8000억원으로 공급규모를 확대해 경제 전반의 역동성과 자본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그룹 차원의 체계적인 실행을 위해 ▲관계사별 추진계획 검토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 ▲주요 이슈사항 및 협업 요청사항 공유 등 세부적인 진행상황을 논의했다. 향후 협의회를 매월 개최하여 해당 임원이 직접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을 공유해 그룹 차원의 속도감 있는 실행을 점검할 계획이다.

생산적 금융 추진계획을 그룹 전체의 목표로 만들기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다. 생산적 금융 실천을 위해 이미 시행한 조직개편 외에 ▲핵심성과지표(KPI) 개편 ▲위험자본 투자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안 ▲생산적 금융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보상체계 점검 등 그룹 전반의 실행체계를 재설계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강성욱 하나금융그룹 투자·생산적금융부문 부회장이(왼쪽 네번째) 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반도체만 ‘방긋’... “산업구조 재편으로 경제 쏠림 완화해야”

코스피 5000시대

반도체가 이끄는韓증시

‘오천피(코스피 5000)’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코스피가 오르자, 주가가 너무 급등해 이들 주식 투자를 포기했거나 다른 주식을 들고 있는 투자자들은 “코스피는 사상 최고라는데, 내가 가진 주식은 왜 안 오르나”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주식 ‘포모(FOMO·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를 호소하거나 “지금 사도 되느냐”고 묻는 투자자도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증시가 아직도 저평가 상태라고 말한다. 다만, ‘K 프리미엄(고평가)’을 받아 ‘육천피’(코스피 6000) 시대를 열려면 외국인 투자를 불러 모을 만한 유인책과 유의미한 경제 회복, 산업 재편과 구조조정, 주주 환원책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반쪽짜리 ‘오천피’

‘삶의 개구리 증후군(Boiled Frog Syndrome)’ 2023년 글로벌 컨설팅기업 맥킨지가 한국 경제를 두고 한 비유다. 중대한 위기가 닥쳐오는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며 해결책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맥킨지가 지적한 위기 중 하나가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졌을까.

한국은 왕성한 무역으로 세계 12~13위의 경제대국을 이뤘지만,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자본 혈류’는 정체한 모습이다. 맥킨지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자본 증대량(공모펀드·사모펀드·회사채 등 증권발행 규모 비중)은 2018년 10.9%에서 2022년 8.2%로 계속 감소중이다. 자본 증대량은 그 나라의 자본 성숙도를 가리키는 척도로 통한다.

최근 외국인 투자가 늘었지만, 정체된 모습이다. 현재 전체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보유 비중은 36%대로 2021년



코스피가 전 거래일(4952.53)보다 31.55포인트(0.64%) 상승한 4984.08에 개장한 지난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맥킨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적 韓 GDP 대비 자본 증대량 감소세

반도체 투톱 시가총액 비중 35.36% 순이익·거래량 등 이외 업종은 소외 올해도 반도체 쏠림 심화 가능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2004년 41.2%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다.

시장도 반쪽짜리 ‘오천피’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껏 본 적 없는 코스피 5000시대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지수만 뽕넌’이다. 특정 업종에 대한 과도한 쏠림으로 국내 증시의 구조적 취약성은 더 심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3일 기준 ‘반도체 투톱’의 시가총액 비중은 35.36%에 달한다. 홍콩증권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근 한 달간 늘어난 코스피 시가총액의 64.3%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나왔다. 올해 초부터 계산해도 기여도는 49.2%다. 코스피 시총 상승분의 절반가량이 반도체 두 종목에 쏠렸다는 의미다. 사실상 ‘반도체 주가=코스피’란 분석이 나올 정도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시가총액, 이익 비중 측면에서 반도체

체가 대부분의 파이를 차지하며 독보적 위치를 다지고 있다”며 “시장 전체 규모는 커졌으나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이 적어진 만큼 반도체에 가려져 이외 업종은 다소 소외되는 그림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12개월 선행 기준 순이익은 코스피 전체 350조원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부분이 173조원으로 49.5%에 해당한다.

거래도 반도체 중심의 대형주에 쏠려 있다. 올 들어 23일까지 코스피 거래대금은 414조6191억원이다. 이 중 시총 상위 10개 종목의 거래대금이 119조2916억원(45.02%)에 달한다. 대형주 중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거래대금 비중은 119조원(28.77%)으로 절대적이다.

취약한 한국경제의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관세청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6번째로 ‘7000억 달러 클럽’에 가입했다.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22.2% 급증한 덕이다.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주력 산업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석유화학(-11.4%)·2차전지(-11.9%)·철강(-9.0%) 등 주요 15대 품목 중 9개 품목의 수출액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역성장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성장률이 1.8%로 잠재 수준에 근접

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반도체 경기에 힘입어 성장을 주도할 IT(정보기술) 부문을 제외하면 성장률은 1.4%에 그치고 부문 간 회복 격차가 커 체감 경기와 괴리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도 쏠림이 예상된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잠정 실적을 발표하거나 컨센서스 추정 기관 3곳 이상이 실적 예상치를 제시한 코스피 상장사 221곳의 지난해 영업이익 전망치 합계는 약 288조3466억원이다. 올해 220곳의 영업이익 추정치 합계는 460조5647억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5년 30.4%(87조6248억원)에서 2026년 46.3%(213조903억원)로 훌쩍 뛰는다. 반도체 쏠림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융·복합 시대 속 제조업 협업 필요 산업구조 개편에 정부 역할 중요

고부가가치 높은 산업 집중 육성 에너지·제약 등 원천기술 확보 AI 고급인력 5만명 육성 등 힘써야

◆구조조정과 산업 재편에 답 찾아야

코스피가 5000시대 쏠림을 해소하고, 한국경제가 저성장(올해 IMF 1.9% 예상)에서 벗어나는 해법은 없을까.

맥킨지의 2023년 ‘한국의 다음 상승 곡선(Korea’s next S-curve)’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 맥킨지는 우선 대대적인 산업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선, 자동차·모빌리티, 소비재 등 한국의 주력 제조업들은 그동안 한 업종에 집중하는 수직 계열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다. 하지만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융·복합 시대에는 다른 업종과 협업하는 식으로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율 운항 선박은 자율 주행,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첨단 센서 등 다양

한 기술이 결합돼야 한다. 조선 업체가 모든 기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 기술을 가진 기업·스타트업과 협력해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맥킨지는 강조했다. 소프트웨어, 콘텐츠 및 플랫폼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에너지, 제약·바이오, 패션·섬유 등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으면서 고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원천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맥킨지는 챗GPT가 촉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AI 고급 인력 5만명을 육성하는 등 인재 육성에도 힘써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증시 쏠림이 이어지면 그만큼 부작용이 뒤따른다고 지적한다. 시장 한 전문가는 “증시 랠리에 환호하는 대신 우리 경제의 쏠림을 완화하고, 성장의 온기가 고루 퍼지게 만들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사실상 반도체 외에는 국내 증시에 동력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며 “반도체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도체는 계절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실적 저하의 우려도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서 교수는 “반도체만 믿고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투자자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 쏠림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산업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구조 개혁은 과감하면서 동시에 섬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단순히 설비를 줄이는데 그치지 않고 핵심 기술과 인재의 끈을 잇고, 전후방 산업 생태계를 함께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I와 배터리 등 첨단 산업도 여전히 ‘철’과 ‘화학’이라는 토대 위에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랠리에 소외된 개미들... “지금이라도 동참” vs “곧 조정 온다”

코스피 인버스 등 순매수... 손실을 커 현대차 3.4조 등 그룹주 사들이기도 코스닥 시장도 선호... 순매수세 유지

#. 중견기업 과장인 이모(36)씨는 코스피 4400을 돌파한 지난 5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2300만원어치 샀다. 주가 상승률의 두 배 수익을 내는 상품이다. 그는 지난 16일 코스피가 4800선을 넘자 이를 모두 팔았다. 9일 만에 수익률은 18%. 이씨는 곧바로 지수 하락률의 두 배 수익을 내는 ‘곱버스’(인버스 2X) ETF로 갈아탔다. 그는 “주가가 더 오르기 쉽지 않을 것 같아 하락에 베팅했다”며 “직장 동료 중에는 상승장에 ‘다걸기’하는 사람도 꽤 있다”고 말했다. #. 가정 주부인 윤모(41) 씨는 지난 16일 인버스 ETF(상장지수펀드)에 650만원가량 투자했다. 인버스 ETF는 지수가 내리면 오히려 수익이 나는 ‘청개구리 ETF’로 하락장에 대처하는 상품이다. 거꾸로 주가가 오르면 손해를 보는 구조다.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코스피 상승 기대와 하락 불안이 공존하는 투자 심리를 담은 이미지.

동학개미들의 투자심리가 갈리고 있다. 남은 상승 랠리에 올라타려는 ‘포모(FOMO·소외공포)’ 투자자와 조정을 예상하며 지수 하락에 투자하는 투자자로 나뉘고 있는 모습이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해 코스피에서 약 26조3700억원을 순매도했으며, 올해 들어 23일까지도 6조원 이상 팔아치우고 있다.

코스피가 5000선에 바짝 다가선 만큼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마음도 조금씩 변하면서 투자심리도 엇갈리고 있다. 남은 상승 랠리에 올라타려는 ‘포모(FOMO·소외공포)’ 투자자와 조정을 예상하며 지수 하락에 투자하는 투자자로 나뉘고 있는 모습이다.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하락에 투자하는 ‘KODEX

인버스’를 652억원, 코스피200 선물지수를 반대로 2배 추종하는 ‘KODEX 200 선물인버스2X’를 1090억원 순매수했다. 상승장에는 올라타지 못했지만, 하락장에는 참여하려는 모습으로 보여진다. 코스피가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조정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것이다.

하지만 수익률은 좋지 않다. 코스콤 E TF체크에 따르면 해당 기간 국내 상장 전체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 하위 1~5위를 모두 코스피200 선물지수 곱버스 상품들이 차지했으며, 전부 마이너스 10%대 손실률을 보였다.

반대로 포모 심리에 달려드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도 코스피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지만, 현대차는 3조4000억원 가량 순매수했다. 현대차의 주가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을 기점으로 부스터를 달았고, 72% 뛰었다. 현대차그룹은 현장에서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했고, 글로벌 시장의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외에도 현대글로벌비즈(5728억원), 현대모비스(3048억원) 등을 순매수 상위 종목에 담으며 현대차그룹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코스피 최고치 행진을 이끌었던 상사·자본재, 자동차, 기계, 건설, 조선, 철강, 반도체 등은 극심한 고평가 영역에 위치해 있다”라며 “순환매가 지속되더라도 상승 탄력은 둔화되거나 단기과열해소, 매물 소화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언했다.

한편,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시장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홀로 유지하며 지난해 코스닥시장에서 7조원 가량을 순매수했다. 올해 역시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3일 코스닥이 2%대 급등하면서 1조원대 순매수세를 보였지만, 이달 기준 8740억원 수준의 순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

/신하은 기자

우리금융그룹



2012년 다산 정약용 탄생 250주년, 2021년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에 이어
2026년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세계 기념해 지정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 강국을 간절히 바랐던
김구 선생의 꿈이
K-컬처의 세계적 열풍으로 실현된 지금

그 꿈을 더 오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2026년 우리은행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합니다



우리은행 X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우리나라  우리은행

한국 책임 강조한 美 국방전략… 한미 전작권 전환에 탄력

美 “군사지원 줄여도 北 억제 가능”
대북 정책 방향 전환 가능성 커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도 가속화

북핵(北核) 억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한국으로 규정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새로운 국방전략(NDS)가 발표되면서,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대북 정책 방향이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달성을 목표로 하는 한미 전작권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24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국의 NDS 분석에 대해 “북한의 GDP의 1.4배나 국방비를 지출하며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 자주국방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적었다.

이어 “확고한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참석자 발언을 들으며 웃고 있다. /뉴시스

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NDS를 공개했다. 이번 NDS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견제와 서반구를 포함한 본토 방위, 동맹국 부담 강화 등이 미 국방전략의 최우선 과제임을 명시했다.

미국은 ‘안보 환경’ 분야에서 미국 본토 및 서반구·중국·러시아·이란에 이어 북한을 5번째로 배치했다. 하지만 북한이 미 본토에 직접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강조하며,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한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높은 국방지출, 견고한 국방산업, 의무적 병역제도를 통해 핵심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미군의 지원 하에서도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능력이 있다”며 “이러한 책임 부담 변화는 한반도 내 미군 태세를 조정(updating)하려는 미국의 이익과도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주된 책임을 져야하며, 이를 통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앨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새 국방전략(NDS) 발표 직후인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다. 콜비 차관은 27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콜비 차관 방한 직전에 NDS가 공개된 만큼, 이번 방한을 통해 새 NDS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우리 측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대중 견제에 집중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동맹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 방어에서 대중국 견제로 우선 순위가 옮겨간다는 의미다.

이럴 경우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전작권 전환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미는 올해 전작권 전환의 3단계 중 2단계 검증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콜비 차관이 국방비 인상에 대해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한미는 지난해 정상회담을 통해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최근 한미 원자력 협력 정부대표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고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협상에 나설 예정인데, 곧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에서 ‘대북·대중 견제’를 명분으로 내세운다면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은 더 빨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與 “국민 눈높이 부합 못해” 野 “인사검증 실패 사과해야”

이혜훈 후보자 지명 철회
민주 “국힘, 진영 따라 평가 달라져”
국힘 “검증 책임, 대통령에게 있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가까스로 인사청문회를 치렀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결단했다. 이에 여권에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인사를 지명 철회한 것은 다행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실패를 두고 사과하는 메시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

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혜훈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전격 철회하셨다. 후보자는 보수 정당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낸 분”이라며 “그러나 국민주권정부의 장관후보자로써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셨고, 신속하게 결단하셨다”고 평가했다.

강 최고위원은 “아쉬운 것은 국민의 힘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배출한 국회의원을, 자신들의 손으로 매장시켰다”면서 “이렇게 철저히 검증할 수 있으면서, 그동안 왜 그러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동일한 인물도 진영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이중 잣대가 과연 옳은 것인지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분명히 밝히셨다.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인물이라면, 진영 논리를 떠나 통합 인사를 앞으로도 계속하시겠다고 말했다”며 “우리 민주당도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을 위한 정치, 그 방법을 계속 고민하겠다. 진영논리가 아닌 국익을 위한 실리적 지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영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도 SNS에 “사필귀정”이라며 대통령의 지명 철회 결정을 평가했다.

박 간사는 “하지만 청와대는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사과는 단 한 마디도 하

지 않았다. 이재명의 ‘이혜훈 원픽’에 국민은 화가 났는데, 엉뚱하게 보수정당 탓을 하고 있다”면서 “청문회에서 이혜훈 전 후보자는 남탓으로 일관했다. 전임 대통령부터 본인이 몸담았던 보수정당은 물론, 남편, 시댁, 아들, 며느리까지 탓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수준이 이혜훈과 똑같다. 민정수석실, 경찰, 국정원, 국세청, 국토부 등을 총동원하고도 감질 세평은커녕 증여세 탈루, 아들 입시특혜, 부정청약, 부동산 투기 등을 하나도 걸러내지 못했다”며 “그래놓고 보수정당에서 과거 공천을 받았다는 동본인 책임은 철저히 외면했다. 후보자

만큼 뻔뻔한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 간사는 “이혜훈 전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12월 중순쯤 지명 소식을 받았다고 했다. 지명이 12월 28일인데, 2~3주간 청와대는 뭘 했던 건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혜훈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 인사를 모두 물리치고, 꼭 짚어서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픽’한 ‘이재명 사람’이다. 그리고 ‘이재명 사람’에 대한 검증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당 공천 검증은 정부 검증과 차원이 다르다. 알면서 모른척하지 말라. 국민 호도하지 말고, 당장 국민께 사과하라. ‘꼼수 정치’에 골몰하느라 검증은 하나도 안했고, 국민 분노만 키웠다고 석고대죄하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정청래표 ‘1인1표제’·‘조국혁신당 합당’ 두고 파열음

“최고위원들 모르게 합당 논의”
정청래 “공유 못해 송구” 사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지도부가 추진하는 ‘당원 1인1표제’와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두고 당 내 문제 제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지도부 출범 이후부터 불거졌던 친명(친이재명)·친청(친정청래) 권력 투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완료된 이후 친명(친이재명) 황명선·이인주·강득구, 친청(친정청래) 문정복·이성윤 등이 선출되며 갈등을 예고한 바 있다.

정청래 대표는 한 차례 좌절된 당원 1인1표제 개혁을 재추진했고, 민주당은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 의견수렴’ 결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도

입 찬반을 묻는 권리당원 여론조사에서 85.3%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1인1표제는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등에서 대의원 투표에 부여됐던 가중치를 없애고 권리당원과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는 방안이다. 친명계 지도부 최고위원은 당원 1인1표제 원칙에는 공감하나, 기계적으로 표의 비율을 맞추면 당세가 강한 수도권과 호남의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고, 취약한 영남 지역의 목소리는 줄어둘 수 있다며 반대 논거를 펼쳤다.

정청래 대표가 임명한 조승래 사무총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원들의 토론과 당원들의 참여, 당원들의 의사에 의해서 1인1표제는 이미 확인된 만큼, 중앙위원회 의결절차만 남겨뒀다”고 전했다.

또한 정 대표는 가장 이래 코스피 종

합주가 지수가 5000포인트(p)를 돌파했다는 희소식이 나온 와중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 제안해 당 안팎의 논란을 샀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전날(24일) 의원총회를 열고 합당의 전제로 혁신당의 DNA가 보존돼야 하며 민주당의 내부 논란이 먼저 정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합당 제안에 황명선·이인주·강득구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서라도 정청래식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정청래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최고위원들조차 모르는 사이에 합당 논의가 진행됐다는 점, 그 절차와 과정의 비민주성을 문제 삼는 것”이라며 “정 대표는 (합당 제안을)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3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그 결단에 이르기까지 최고위 논의도, 당원 의견 수렴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세 최고위원은 정 대표의 공식 사과를 요청했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합당 제안이 나오게 된 구체적 배경을 밝히라고 했다.

정 대표는 합당 제안 다음날인 24일 충북 진천에서 열린 현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가지 불가피성과 물리적 한계 등으로 (합당 제안을)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또한 “당대표가 먼저 제안하지 않고서는 지방선거 전에 (합당이) 시간상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었다”면서 “그러나 꼭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조국혁신당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의사가 있고 내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얘기한 만큼 (조국혁신당도) 더 큰 용기를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갑작스러운 합당 제안을 두고 당내 반발이 나오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정 대표가 이야기를 했고 절차를 잘 지키겠다고 말씀했다”고 부연했다. /박태홍 기자

AI 대전환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곳에서 새로운 AI 시대가 펼쳐집니다

We Do Technology | SK hynix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소비자 보호·글로벌 강화·AI 고도화… ‘성장 엔진’ 가동

2026 보험, 위기와 기회

한화생명

한화생명의 2026년 경영기조는 ‘소비자보호 강화·글로벌 시너지·디지털·AI 고도화’다. 확실성이 커진 보험 환경에서 ‘기본 체력’과 ‘성장 엔진’을 동시에 끌어 올리겠다는 포석이다. 설계사 조직 확대에 따른 판매 품질관리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베트남·인도네시아 중심의 해외 이익 확대와 인공지능(AI) 내재화로 경쟁력을 재정렬할 계획이다.

◆ 소비자보호 ‘경영 최우선’

한화생명은 2026년을 기점으로 금융 소비자보호를 경영의 최우선 가치 중 하나로 삼고 관련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핵심은 ‘양적 성장’에 맞춘 ‘질적 관리’다. 그동안 설계사 조직 규모를 확대하며 채널 경쟁력을 키워온 만큼, 올해는 조직 규모에 걸맞은 내부통제와 판매 프로세스 정교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화생명은 2025년 3분기 누적(연결) 당기순이익 7689억원을 기록했고,



권혁웅 대표



이경근 대표

불완전판매 예방 관리체계 고도화
상품판매 전과정 표준 프로세스 강화

베트남 법인 보험·금융 입지 확대
‘새 성장축’ 중동시장, 단계적 접근

축적한 AI 기술·데이터 역량 바탕으로
고객 접점 개인화 서비스 경험 제공

3분기 연결 순이익은 307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늘었다. IFRS17 체제에서 핵심 지표인 신계약CSM은 3분기 5643억원, 3분기 말 보유계약 CSM은 9조594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전성 지표인 K-ICS(지급여력) 비율은 3분기 말 기준 157% 수준이다.

한화생명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서울 여의도 한화생명 사옥.

/한화생명

사전·사후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상품 판매 전 과정에서 고객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표준 프로세스를 강화한다. 설계사 교육 체계와 윤리 기준도 체계화해 영업 현장 전반에서 고객 중심 가치가 일관되게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소비자보호를 ‘구호’가 아니라 ‘프로세스’로 실현하겠다는 의미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금융 환경 전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2026년을 기점으로 소비자 보호를 경영의 최우선 가치 중 하나로 삼고 관련 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한 만큼 ‘내실 강화’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 글로벌 시너지…AI, 현장 과제

한화생명의 새해 글로벌 전략은 ‘확장’에서 ‘시너지·안정화’로 무게중심을 옮긴다. 이미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한 베트남 법인과 보험·금융 전반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사업을 중심으로 국가별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지 시장 이해를 바탕으로 상품, 리스크 관리, 디지털 역량을 공유해 운영 효율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끌어 올리는 방식이다.

여기에 ‘중동’이 새 성장 축으로 가세한다. 한화생명은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중동 지역 진출을 적극 추진하되, 중동 특유의 금융 환경과 성장 잠재력을 고려해 단계적·선별적 접근으로 중장기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다. 한화

금융이 아부다비 금융주간(ADFW) 등 현지 금융 네트워크를 넓히는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2026년에는 사업모델이 얼마나 빠르게 가시화되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디지털·AI는 ‘미래 과제’가 아니라 ‘현장 과제’로 설정됐다. 한화생명은 디지털과 AI를 미래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삼고 2026년에도 관련 투자와 실행에 속도를 낸다. 축적한 AI 기술과 데이터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 접점에서는 개인화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고, 영업 현장에서는 설계사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AI 기반 상담·분석솔루션을 고도화해 설계사가 고객의 삶 전반을 이해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쉽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화생명은 “단순히 글로벌 사업에 진출한 보험사를 넘어 안정적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글로벌 금융사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라며 “AI 기반 상담, 분석 솔루션을 지속 고도화해 쉽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서울 생활권… 대기업·교통인프라 ‘아직’

부동산 현장 르포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오는 3월·6월 3881가구 공급 예정
2027년 입주, GTX는 2030년 개통
대기업 유치 못하고 주택만 늘어나
여의도·노량진 연결 고양은평선 추진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1공구 현장.

/성채리 인턴기자

지난 23일 찾아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창릉 공공주택지구. 지도 애플리케이션에서 검색한 목적지에 도착하니 예비군 훈련소 앞이었다. 아직 이전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군부대 부지다. 맞은 편에서는 크레인 여러 대가 움직이며 S5·S6·A4 블록 공사가 한창이었다.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는 덕양구 원흥동, 동산동, 용두동 일대 789만19㎡를 개발하는 3기 신도시다. 오는 3월과 6월에 388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 경계와 불과 0.7km 떨어져 있는 데다 은평·마포와 인접해 ‘서울 생활권 신도시’로 불리는 곳이다.

◆ “GTX 늦어져도 포기는 안 해요”

현재 창릉지구에서 이용할 만한 역은 3호선 원흥역과 삼송역, 경의중앙선 한국항공대역이다. 중심부에서 여까지 거리가 있어 버스 환승이 필요하다. 서울로 출퇴근하려면 교통여건이 개선돼야 한다.

고양 창릉지구의 핵심 교통 호재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창릉역은 2030년 개통 예정이다. 공공주택 첫 입주가 오는 2027년으로 계획돼 있어 ‘선입주·후교통’이 불가피하다. 가구당 광역교통분담금 추정액은 7366만원으로,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두 배 수준이다. ‘선교통·후입주’를 기대하며 주민들이 높은 분담금을 냈지만 철도 개통은 4년이나 밀린 상황이다.

인근 L공인중개업소의 대표는 “GTX가 늦어지긴 했지만 입주하고 언젠간 개통될 테니 ‘몸테크’를 감수하겠다는 수요가 있다”며 “신축 수요가 높다보니 2년 정도는 기다릴 수 있다는 반응이다”라고 말했다.

◆ 분양가 상승에 사전 청약자 이탈

교통보다 더 큰 변수는 분양가다. 창릉 A4·S5·S6 블록은 사전청약 당시보다 분청약 분양가가 최대 1억원가량 상승했다. 공사비와 사업비 증가가 직격탄이었다. 그 결과 사전청약 당첨자의 26.6%가 분청약을 포기했다.

현장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청약 포기에 대해 “입주까지 남은 기간이 길기도 하고, 분양가가 많이 오르긴 했다”면서도 “창릉뿐 아니라 계양, 왕숙 등 다른 신도시에서도 포기 물량이 나온 건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창릉신도시의 사전청약 포기 비율은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분청약에서 A4·S5·S6 블록 일 반공급 경쟁률은 최대 96대 1을 기록했다. 서울 거주자 비중은 약 30%에 달한다.

◆ “베드타운 우려”

또 다른 고민거리는 일자리다. 3기신도시 가운데 부천 대장은 SK와 대한항공, 남양주 왕숙은 카카오와 우리금융 등 영

커 기업 유치가 가시화됐지만, 창릉은 아직 뚜렷한 기업 유치 성과가 없다.

이 과정에서 LH가 자족용지를 주택 용지로 전환하려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자족용지를 주택으로 돌리면 단기 공급은 늘어난다. 인근 부동산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목표가 자족 도시인데 주택만 늘리면 고양은 영원히 베드타운에 머무를 것”이라며 “공업용지가 일산 테크노밸리 쪽에 몰려있다고 보니 대기업 유치를 소망하는 이곳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고 했다.

다만 일부 수요자 사이에선 ‘차라리 가장 좋은 베드타운이 되자’는 현실론도 나온다. 기업 유치가 되면 좋겠지만, GTX-A와 고양은평선이 개통되면 삼성동·여의도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판단에서다.

◆ 자족도시 될 수 있을까

GTX 개통에 대한 기대와 서울 접근성은 여전히 창릉신도시의 강점으로 꼽힌다. 남양주 왕숙은 아직 GTX 추진 단계이고, 하남 교산은 강남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반면 창릉은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와 교통 개선 효과가 가시적이란 평가다. GTX와 함께 추진되는 고양은평선도 여의도, 노량진, 서울대쪽 중심 업무지구와 연결되고, 양재IC-현천JC 지하고속도로가 뚫리면 차로 이동하기에 편리하다.

반면 분양가 상승과 광역교통분담금 등 비용 부담이 커질 경우, 입주민 체감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 유치에 실패하면 서울 통근에 의존하는 베드타운이 될 수도 있다. 고양 창릉이 3기신도시의 목표인 자족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선 교통망 확충과 일자리 등 도시 기능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성으로 증명… 경쟁 은행과 격차 줄여야”

정진완 우리은행장, 경영전략회의

“2025년이 우리은행의 기반을 다지고 체력을 만든 시간이었다면, 2026년은 반드시 성과로 증명해야 하는 해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고, 현장의 변화가 함께 한다면 경쟁은 행과의 격차가 반드시 줄어들고, 시장의 판도도 바뀔 것이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사진)은 지난 23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개최한 ‘2026년 경영전략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우리은행은 ‘고객과 함께하는 성장, 미래를 위한 도약’을 2026년 경영목표로 선정하는 한편, 생산적 금융을 통해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거래범위를 넓혀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전략도 제시했다.

이날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고객 확



대 ▲수익 강화 ▲미래 성장 ▲책임 경영 등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4가지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현장 소통과 조직 실행력을 높여 올해 분명한 성과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행장은 지난해 은행 체질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영업 방식의 변화’를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자산 관리(WM) 부문 특화채널 고도화, AI 기반 프로세싱 효율화, 직장인과 소상공인 수요를 위한 거점 중심의 ‘전문상담센터’ 시범 운영 등 전문성 확대에 집중한다.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업무 속도 및 정확도 개선도 주문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이번주 전국 3개 단지서 184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김포 ‘여기家’ 등… 일반물량 156가구

1월 넷째주에는 전국 3개 단지 총 18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일반분양 물량은 156가구다.

2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 양촌읍 ‘여기家(장애인자립특화형공공임대)’,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형남아파트6차’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형남종합건설은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일원에서 ‘형남아파트6차’를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최고 8층, 3개동, 총 94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84·133㎡, 5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모텔하우스는 경기 안양시 안양동 ‘안양역센트럴아파트크수자인’,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e편한세상센텀하이베뉴’ 2곳이 오픈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 BS한양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일원에서 안양역세권지구 재개발을 통한 ‘안양역센트럴아파트크수자인’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8개동, 총 853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39~84㎡, 40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1호선 안양역역세권 단지이며, 월곡관교선 안양역(2029년 예정, 가칭)도 가깝다.

/안상미 기자 smahn1@

“지프·푸조 라인업 확대… 韓 소비자에 가장 좋은 선택지 제공”



인터뷰

방 실

스텔란티스코리아 대표

“지난 2025년 한해는 고객 가치 향상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경쟁력 있는 모델로 판매량 확대에 집중하겠다.”

방실 스텔란티스코리아 대표는 최근 서울 강남 스텔란티스코리아 사무실에서 진행한 신년 간담회에서 지난해에는 지프와 푸조 브랜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서비스 네트워크망을 새롭게 정비했다면 올해는 이같은 질적 성장을 바탕으로 판매량을 끌어올린다는 각오를 밝혔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지난해 딜러사와 협력을 통해 서비스 네트워크 확대에 집중했다. 지프와 푸조 브랜드 통합전시장 ‘스텔란티스 브랜드 하우스(SBH)’ 구축을 통해 소비자 만족 지수는 전년 대비 23%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지프 서비스센터 수원의 경우 과거 단층의 시설 서비스센터 느낌이 강했지만 SBH로 확장하면서 프리미엄 서비스 센터로 거듭났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또 직판 체제 전환으로 푸조 재고량은 2023년 593대에서 지난해 0대로 줄었고 지프



방실 스텔란티스코리아 대표.

지난해 서비스 네트워크 재정비
지프 그랜드 체로키 등 출시 예정
“경쟁력 있는 모델로 판매량 증대”

재고도 719대에서 120대로 감소했다.

방 대표는 “정비 리드 타임이 1.5일로 단축됐고 대기 기간은 열흘에서 일주일로 줄었다”며 “서비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차 판매 확대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올해 지프 브랜드는 랭글러를 바탕으로 브랜드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함과 동시에 푸조는 친

환경 라인업을 확대하며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10년 만에 완전 변경 모델로 돌아온 3세대 7인승 패밀러 SUV ‘올 뉴 5008 스마트 하이브리드’는 기존 2세대보다 넓어진 실내 거주성과 48VMHEV 시스템을 적용해 도심 주행 시간의 50%를 전기 모드로 운행할 수 있다. 정속성과 효율성을 함께 끌어올렸다.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는 각각 136마력·23.5kg·m, 15.6kW·5.2kg·m 성능을 발휘하며 합산 최고 145마력을 구현한다. 국내 인증 기준 복합 연비는 13.3km/L이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22g/

km다. 2종 저공해차 인증을 받아 공영주차장 할인과 혼잡통행료 감면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가격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선보인다. 국내 선보이는 기본형 알파르의 경우 대만(6369만원), 프랑스(6591만원), 영국(7447만원)보다 저렴한 4890만원에 출시한다.

지프의 부분변경 모델로 올 하반기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그랜드 체로키는 브랜드 정체성을 완벽하게 담아냈다. 그랜드 체로키의 가장 큰 변화는 새롭게 적용된 ‘허리케인 4 터보’ 엔진으로 양산차 최초의 터보턴트 체트 점화 기술이 적용됐다. 모터스포츠에서 검증된 연소 기술과 첨단 파워트레인 설계를 적용해 출력과 토크를 높이면서도 연비 개선과 배출가스 저감을 동시에 달성했다. 지프는 올해 랭글러, 글래디 에이터 등 오프로드 한정판 모델을 국내에 출시해 마니아층 공략에 집중할 방침이다.

방 대표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차량 구매시 가장 좋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싶다”며 “고객 경험과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를 토대로 스텔란티스의 조직 전반의 운영효율과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더 프레임 프로’ TV.

/삼성전자

삼성 ‘더 프레임 프로’ 美 CNN 혁신상 수상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프리미엄 TV 시장인 미국에서 제품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삼성전자는 자사 ‘더 프레임 프로’ TV가 미국 유력 매체 CNN의 제품 평가 전문 매체인 CNN 언더스코어로부터 혁신상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CNN 언더스코어는 ‘더 프레임 프로’에 대해 “복잡한 케이블을 없애고 강력한 화질을 갖춰 고품질 디스플레이인 동시에 예술 작품 액자 기능을 한다”며 “기존 아트 TV의 한계를 넘어 ‘갤러리 같은 미니멀리즘’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첫 번째 아트 TV”라고 평가했다.

특히 ‘무선 원 커넥트 박스’를 가장 큰 변화로 꼽았다. 영상과 음향 신호를 무선으로 전송하는 ‘무선 원 커넥트 박스’를 두고 “디스플레이에 복잡한 케이블이나 부피가 큰 부속품 없이 전원만 연결하면 된다”며 “화면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플로팅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NN 언더스코어는 ‘더 프레임 프로’의 화질에 대해서도 “명암비와 밝기가 크게 개선돼 예술 작품 감상은 물론 TV나 영화 시청 때도 안정적 화질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양성운 기자

SK온, ESS 시장진입 속도… 전기차 중심 사업구조 보완

법인 출범 이후 대규모 적자 이어져 정부 ESS사업 입찰 등 체질개선 사항

SK온이 적자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응,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지만, 실적 개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SK온은 지난해 4분기 약 324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기차 신차 구매 보조금이 지난해 9월 말 종료되면서 북미 전기차 판매 부진이 실적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적자가 4906억원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연간 영업손실 규모는 8000억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 SK온은 2021년 10월 독립 법인 출범 이후 2024년 3분기를 제외하면 사실상 매년 적자가 이어졌으며 누적 적자 규모는 3조원선으로 추산된다.

올해 역시 실적 반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업계에



SK배터리아메리카 전경.

/SK온

서는 SK온이 올해 배터리 부문에서 1조 2320억원 안팎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적 부진의 배경으로는 전기차 수요 위축과 정책 환경 변화가 꼽힌다. 미국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종료와 유럽연합(EU)의 친환경 정책 기조 완화로 수요 회복이 지연됐고, 완성차 업체들의 발주조정이 이어지며 생산물량도 감소했다. 이에 따라 SK온의 지난해 3분기 기준 공장 가동률은 52.3%에 머물렀다.

전기차 시장 침체는 북미 주요 고객사인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가 생산 계획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면서 합작 사

업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SK온은 지난해 12월 포드와의 합작사인 블루오벌SK의 지분 구조를 정리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캔터키 공장은 포드가 운영하고 테네시 공장은 SK온이 단독 운영하는 체제로 전환됐다.

전기차 중심 사업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SK온은 ESS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정부 주도의 1조원 규모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에 참여하며 국내 ESS 시장 진입에 나섰다. 충남 서산 공장에는 ESS 배터리 전용 생산라인을 구축했고, 기존 전기차 배터리 일부 라인을 ESS용 리튬인산철(LFP) 라인으로 전환해 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다만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을 두고 업계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의 양강 구도를 예상하고 있다. SK온은 ESS 관련 사업 경험이 제한적인 데다 제1차 ESS 중앙계약시장 사업에서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던 만큼, 이번 입찰에서 성과와 물량이 제한적일 것이란 시각이 적지 않다. 제2차 ESS 중앙계약시

장 입찰에서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를 채택한 컨소시엄 비중은 45% 이상, 삼성SDI는 40% 안팎으로 알려진 반면, SK온은 약 15% 수준으로 전제한다.

SK온은 향후 ESS 사업 확대를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가 ESS 배터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국내 산업 기여도’를 주요 평가 항목으로 반영한 만큼, 이에 맞춰 공급망 전략을 조정하는 방향이다. SK온은 내년부터 국산 배터리 소재를 적용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출시할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ESS 중앙계약시장은 컨소시엄 구성 단계에서 기존에 협업 경험을 쌓아온 업체 간 결합이 많은 구조”라며 “ESS 사업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SK온이 단기간에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응해 ESS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지만,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전자 “자급제 고객 5명 중 1명 ‘뉴 갤럭시 AI 구독클럽’ 가입”

잔존가 보상·파손 보장 등 혜택

삼성전자 스마트폰 자급제 구매 고객 5명 중 1명 이상이 ‘뉴 갤럭시 AI 구독클럽’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삼성전자가 ‘뉴 갤럭시 AI 구독클럽’ 지난해 성과를 분석한 결과, 론칭

1년 만에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며 스마트폰 구매 문화를 새롭게 바꾸고 있다. ‘뉴 갤럭시 AI 구독클럽’은 지난해 1월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판매부터 새롭게 도입한 구매 방식으로, 7월 ‘갤럭시 Z 폴드7·Z 플립7’ 출시에도 적용해 상하반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흥행을

이끌었다.

가입 기간은 12개월과 24개월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 후 반납 시 최대 50% 잔존가 보상과 ‘삼성케어플러스 스마트폰 파손+’ 제공, 모바일 액세서리 할인 등을 제공해 최신 갤럭시 구매 장벽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뉴 갤럭시 AI 구독클럽의 인기 요인으로 사전판매 더블스토리 혜택과 결합시 고객 체감 혜택이 높은 점(256GB 기준으로 구매한 뒤 반납 시 512GB 기준으로 보상), 삼성케어플러스 파손+ 가입 비용과 동일한 가격으로 잔존가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점, 빠른 기기 교체를 원하는 젊은층 수요를 공략한 점 등을 꼽았다.

/양성운 기자

LG 매그니트 신제품에는 ‘LTD(Line to Dot) 기능’을 탑재해 외부 영향으로 개별 광원이 작동하지 않아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 캐비닛(LED 사이니지의 기본 구성단위)을 블록처럼 간편하게 이어 붙여 무한 확장할 수 있는 특성에 맞춰 설치 편의성도 강화했다. 제품 두께를 기존보다 얇게 했으며 손쉽게 단자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도 적용했다.

/양성운 기자

‘행복한 경영대학’ 10년… 中企 CEO들에 행복 바이러스 전파

인터뷰

이 의 근

(사)행복한성공 이사장

휴넷 후원, 2016년부터 전 과정 무료
10년간 1100여명 졸업생 배출
李이사장, 2022년부터 운영 총괄
삼성 거쳐 수원하이텍고 교장 역임
“건강한 생태계·선한 영향력 키울 것”
참여자 매출·직원증가 선순환 효과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위한 과정인데 공짜다. 알만한 대학의 비싼 CEO 과정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11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사장님들은 이를 통해 체득한 ‘행복경영’을 회사 임직원들에게 전파하고 있다. ‘행복 바이러스’다.

교육기업 휴넷이 뒷받침하고 사단법인 행복한성공이 운영하고 있는 ‘행복한 경영대학’ (행경)이 지난 10년간 걸어온 발자취다.

“‘행복한성공’은 기업 경영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등 선순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수업료가 없는 CEO 과정은 아마도 유일할 것이다. 돈을 안받으니



이의근 이사장이 ‘행복한 경영대학’ 10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서적 ‘calling’을 들고 미소를 짓고 있다. /김승호 기자

(우리가)사람을 마음껏 고를 수 있다. 이곳을 거친 분들은 ‘가치공동체’다. 수강생 중 동문들 추천 비율은 60~70%에 이른다. 자신이 제일 아끼는 또다른 CEO들을 여기에 데려 온다.”

이의근 이사장은 2022년부터 (사)행복한성공을 이끌고 있다. 3년 임기인데 어느덧 두번째 임기에 접어들었다.

이 이사장은 87년 당시 삼성그룹에 입사해 삼성디스플레이 경영혁신팀장, 삼성전자 TP센타 인사팀장 등 경영 임원을 하기까지 30년간을 삼성에서 일했다. 삼성을 퇴직한 후에는 마이스터고인 수원하이텍고등학교 교장을 4년간 역임했다.

이 이사장은 “내게는 30년간의 삼성

생활이 ‘채움’의 단계였다. 채움 단계를 마치고 퇴직하면서는 자연스럽게 ‘나눔’의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그게 교장을 하면서였다”며 “두 차례 걸친 서류 심사 와 프리젠테이션을 거쳐 영광스럽게도 경기도에서 1호 산업체 출신 교장이란 타이틀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이 이사장이 행경과 첫 인연을 맺은 것은 자신이 2018년에 6기로 입학하면서다. 행경은 지난해 18기까지 배출했다. 이에 앞서 그는 휴넷 창업주인 조영탁 대표가 쓴 ‘행복한 경영이야기’를 읽으며 정서적 교감을 하기도 했다. 조 대표의 부탁에 교장 임기를 마치고 큰 고민없이 행복한성공 이사장직을 수락한 것도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행경은 ‘CEO가 변해야 기업이 변한다’는 믿음을 토대로 펼치는 휴넷의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다. 이를 통해 1만명의 경영자를 양성하면 그들이 이끄는 직원들도 행복해지고, 사회 전체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그런 이상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

수강생들은 무료지만 CEO과정을 만든 조 대표는 운영을 위해 매년 5억원씩을 기부하고 있다. 물론 참여한 CEO들의 기부도 늘어나고 있다. 손욱 전 삼성전자 사장, 고인이 된 이민화 벤처기업 협회장 등이 교수진으로 동참했고 이금룡 도전과나눔 이사장, 윤은기 한국협업

진흥협회장은 관련 취지에 공감하면서 10년째 열정적인 강의를 이어오고 있다.

행복한성공에 따르면 동문기업들의 연평균 매출은 11% 증가하고 직원수도 6% 늘어나는 등 행복경영이 경영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CEO의 행복→임직원 행복→기업 성과 제고→고용 창출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나라 경제와 국가 살림에도 보탬이 되는 등 선순환 효과가 생기고 있는 셈이다.

이 이사장은 “그동안의 운영 노하우와 데이터 등을 토대로 ‘행복경영지수’를 개발할 계획도 갖고 있다. 조직문화를 가꾸기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은 지수를 톨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기업생태계를 건강하게 하는 게 목표다. 그 생태계에선 사람, 즉 구성원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기업은 지속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

행복경영을 추구하는 이 이사장은 최근의 쿠광 사태를 보면서 적지 않은 생각도 들었다.

“쿠광은 기업의 철학이 정립되지 않은 것 같다. 사람을 도구로 활용하고 법적인 것만 충족하면 되는 조직은 안된다. 행복한 경영대학을 통해 마력이나마 선한 경영이 주목받고 하나의 이정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KCC글라스

올해 디자인 테마

‘스틸 인 플럭스’ 제시

변화의 시기 맞아 공간기준 재정립

KCC글라스가 올해 디자인 테마로 ‘스틸 인 플럭스(Still in Flux)’를 제시했다.

스틸 인 플럭스는 변화의 시기를 맞아 유연한 선택과 조정을 통해 공간의 기준을 다시 정립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5일 KCC글라스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 호텔에서 인테리어 트렌드 세미나인 ‘2026 트렌다이버(TR EN DIVE)’를 개최했다.

트렌다이버는 KCC글라스 홈페이지가 매년 초 주요 고객사 담당자들과 함께 인테리어 시장과 소비자의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주목해야 할 디자인 트렌드를 전망하는 세미나로, 6회째를 맞이하는 올해에는 400여 명이 참석했다.

KCC가 ‘26/27 인테리어 트렌드’를 주제로 사회, 경제, 문화, 라이프스타일 전반의 흐름을 다각도로 해석해 도출한 3가지 디자인 방향성은 ▲서로 다른 스타일과 재료, 문화적 배경의 조화를 강조하는 ‘CHORD(코드, 조율의 미학)’ ▲메탈의 차가움과 우드의 따뜻한 등 대비되는 소재의 균형을 통해 절제되고 깊이 있는 감각을 추구하는 ‘SENSORIAL(센소리얼, 감각의 온도)’ ▲여백과 재료 고유의 질감을 통해 공간이 담고 있는 의미와 본질에 집중하는 ‘MEANING(미닝, 의미의 결)’ 등이다.

/김승호 기자

팁스 통해 창업기업 800개 지원

R&D 최대 8억으로 ‘대폭 확대’

중기부, ‘팁스 창업기업 지원계획’ 공고 비수도권 우선 할당, 투자요건 완화

중소벤처기업부가 팁스(TIPS)를 통해 올해 창업기업 800개사를 선정,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R&D 일반트랙 지원금액을 2년간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팁스 창업기업 지원계획’을 26일 공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팁스는 민간의 운영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선별, 투자·보육하고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체계다.

우선 R&D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R&D 일반트랙 지원단가 상향은 팁스 도입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맞춰 팁스 운영사 투자 요건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려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유망기업 선별기능도 강화한다.

R&D 답테크트랙의 지원대상을 팁스 참여이력이 없는 기업에서 일반트랙 졸업 기업으로 개편해 일반트랙을 졸업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3년 15억원 규모의 후속 연구개발 지원을 제공한다.

지역 팁스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R&D 일반트랙 전체 모집물량의 50%를 비수도권 기업에 우선 할당한다. 투자요건도 수도권 기업 대비 50% 완화(수도권 2



중소벤처기업부.

억원, 비수도권 1억원)한다.

선정평가 과정에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요소를 반영한다. 기후테크·소셜벤처 등 ESG 기업에 R&D 일반트랙 전체 모집 물량의 10%를 우선할당하고, 퇴직연금제도 도입 여부를 평가에 반영한다. 아울러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R&D 답테크트랙은 기존 2회 대면평가를 1회로 통합하고, 비R&D는 대면평가에서 서류평가로 전환한다.

중기부 조정원 창업정책관은 “AI·딥테크를 중심으로 한 기술 대전환이 세계 경제 패러다임을 재편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 창업기업의 잠재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지원계획을 통해 혁신 창업기업에 대한 성장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홈앤쇼핑, ‘스테디셀러’ 육성 판로 확장

中企·소상공인 판로지원 통합 공고
‘일사천리’ 통해 홈쇼핑 생방송 기회

홈앤쇼핑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2026년도 판로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홈앤쇼핑은 ‘2026년도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지원 통합 공고’를 사전 안내하고 TV홈쇼핑과 모바일, 해외 수출까지 연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선정된 상품은 홈앤쇼핑의 TV홈쇼핑 방송을 연내 지원받는다. 방송 이후에는 스테디셀러 상품으로 육성에 지속적인 판로 확대를 도모한다.

우선 국내 판로지원 분야에선 ‘일사천리 사업’을 통해 2월부터 5월까지 지자체 및 유관기관 일정에 따라 TV홈쇼핑 생방송 1회(50분) 노출 판매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 우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품을 발굴하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돕는다. 모바일 판로지원은 연중 상시 운영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매장 입점을 지원한다. 다양한 주제별 영역을 구분해 상품 노출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수출지원 사업도 연중 상시 진행한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 토털 서비스를 비롯해 상품 직매입 수출, K-뷰티·푸드 등 K-우수상품 수출 지원, 국내외 박람회 및 행사 참가 기회를 제공한다. 역량 강화를 위한 ‘일사천리 아카데미’도 운영한다. TV홈쇼핑 방송 운영에 필요한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컨설팅 및 교육을 제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코트라, 더우인과 K-소비재 中 진출 ‘가속’

국내 기업과 현장 매칭 확대

중국 최대 온라인 유통 플랫폼 더우인의 해외 사업 담당자가 한국을 찾아 국내 K-소비재 기업들과 교류에 나서며 중국 역직구 시장을 겨냥한 유통·물류 협력이 논의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 23일 서울 서초 본사에서 더우인 활용 중국 역직구 물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중국 최대

쇼핑·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인 더우인과 협력해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역직구 물류 인프라, 온라인 마케팅 전략, 라이브커머스 활용 방안을 종합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사업 총괄책임자가 이끄는 뷰티·반려동물·패션·유아용품 구매책임자 5명과 중국 현지 벤더사 39개사, 중국 인플루언서 31명이 함께 방한해 국내 기업들과 교류했다.

/원관희 기자 wkh@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언어를 배우다 커리어가 되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모집일정 | 1차: 12. 1(월) ~ 2026. 1. 15(목) / 2차: 2026. 1. 28(수) ~ 2. 12(목)

모집학부 |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경영학부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 상담심리학부 K뷰티학부

입학상담 | 전화 02-2173-2580 카카오톡 cufs



EU, 통신정책 구조적 전환 예고 규제 정비·글로벌 통신시장 통합

‘디지털 네트워크법’ 논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1일(현지시간) 통신 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네트워크법(Digital Networks Act, DNA)’을 공식 제안했다. 이번 법안은 단순한 규제 정비를 넘어 주파수 할당 체계 개편, 네트워크 보안·복원력 강화, 단일시장 구축까지 아우르며 유럽 통신 정책의 구조적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25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DNA는 향후 회원국 의견 수렴과 유럽의회 입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존 지침(Directive) 중심의 통신 규제를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Regulation)으로 전환해, 국가별로 편화된 통신 시장을 단일 시장으로 통합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DNA에서 주목되는 대목 중 하나는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통신사(ISP)와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플랫폼 사업자(CP) 간 갈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려는 시도가 담겼다는 점이다. 다만, 그동안 논란이 이어져 온 ‘망 사용료’ 자체를 법으로 규정하거나, 규제기관이 대가를 산정·중재하는 구조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DNA는 양측 간 충돌이 시장 혼란이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율적 협력과 조정을 유도하는 ‘자발적 조정 절차(Voluntary conciliation)’를 도입했다. 해당 절차는 요금이나 분담금 결정을 강제하지 않으며, 규제기관은 분쟁 관리와 질서 유지를 지원하는 역할에 머문다.

집행위원회는 고성능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 부담이 특정 주체에 과도하게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제시하면서도, 미국 빅테크와의 통상 갈등



EU 집행위원회가 새롭게 공식 제안한 ‘디지털 네트워크법(DNA)’이 국내 통신정책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모이고 있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ISP-CP 갈등 제도적 관리 시도 망 이용대가 문제는 절충적 접근

장기적 주파수 사용권 부여 가능 사이버 보안·공급망 리스크 관리 ↑ 광섬유 중심 네트워크 전환 추진

과 망 중립성 논란을 고려해 직접적인 지불 의무 규정은 법안에서 제외했다. 이로 인해 DNA는 망 이용대가 문제를 제도화하기보다는, 향후 추가 논의 여지를 남긴 절충적 접근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파수 정책에서도 대대적인 변화가 담겼다. DNA는 기존의 한시적 사용권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매우 장기적이거나 사실상 무기한에 가까운 주파수 사용권 부여를 가능하게 했다. 6G 상용화와 초광대역 네트워크 구축에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통신사들의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동시에 주파수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묶이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하거나 공유하라(Use-it-or-share-it)’는 원칙을 강화해, 활용되지 않는 주파수에 대한 회수·공유 장치도 마련했다.

DNA는 통신 인프라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사이버 보안과 공급망 리스크 관리도 강화했다. 다만 특정 국가나 기업을 직접 지목하기보다는, 네트워크 복원력과 보안 기준을 EU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이는 5G 보안 톨박스, NIS2 지침 등 기존 EU 안보 정책과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또한 EU 전역의 디지털 연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구리 기반 레거시 네트워크에서 광섬유 중심의 차세대 네트워크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2035년을 전환의 기준 시점으로 삼되, 광섬유 커버리지와 대체 서비스의 가격·품질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 한해 구리망 종료의 의무화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업계에서는 DNA가 유럽 통신 시장 뿐 아니라 글로벌 통신 정책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도 ISP와 CP 간 망 이용대가 갈등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요금 규제 중심의 국내 논의와 달리 시장 구조와 투자 환경 전반을 손질하는 EU식 접근이 입법·정책 논의의 새로운 비교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유튜브, ‘스포츠 플랜’ 공식화 글로벌 중계권 시장 뛰어든다

자금력을 갖춘 유튜브가 유료 스포츠 요금제 출시를 공식화하면서 글로벌 스포츠 중계권 시장의 경쟁 구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주요 리그의 중계권 계약이 이미 상당 부분 체결된 상황 이어서 당장의 시장 판도 변화는 제한적 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튜브 최고경영자(CEO) 닐 모한은 지난 22일 자사 블로그를 통해 유튜브TV에 완전 맞춤형 멀티뷰 기능과 함께 분야별 10개 이상의 요금제를 순차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금력 앞세워 스포츠 네트워크 장악 ‘야심’

이 가운데 핵심 상품으로 ‘유튜브TV 스포츠 플랜’을 지목하며 FS1, ESPN 언리미티드 등 주요 스포츠 네트워크 접근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한 CEO는 NFL 선데이 티켓과 레드존 등 추가 패키지 결합 가능성도 언급했다. 스포츠 플랜 가입자는 무제한 DVR, 멀티뷰, 주요 플레이 하이라이트, 판타지 뷰 등 기존 기능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NFL 선데이 티켓·레드존 등 추가 패키지 결합 가능성도 단기간 시장 큰 변화는 없을 듯

현재 미국에서만 서비스를 제공 중인 유튜브TV는 NFL 선데이 티켓을 월 34.5달러 수준으로 독점 제공하며 지역 방송에 편성되지 않은 NFL 경기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스포츠 플랜의 구체적인 출시 시점과 요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글로벌 플랫폼의 스포츠 중계권 시장 본격 참전으로 경쟁이 한층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내에서도 SOOP, 네이버 치지직, 쿠팡플레이 등 주요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스포츠 중계권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유튜브의 자금력에 주목



/픽사베이

한다. 유튜브가 지난 4년간 크리에이터와 미디어 기업에 지급한 금액은 누적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스포츠 중계권 시장에서는 애플 TV 플러스의 미국 프로축구 MLS 독점 계약처럼 전 세계 중계권을 단일 플랫폼이 확보하는 사례도 이미 등장했다.

◆“이미 계약된 경기 다수…기술력 경쟁으로 이동”

다만 유튜브TV의 시장 진입이 단기간에 큰 변화를 만들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굵직한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의 경우 중계권 계약이 수년 단위로 체결돼 있어 신규 사업자가 파고를 여지까지 앗아간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주요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는 계약이 대부분 체결된 상태”라며 “초기에는 마니아층을 겨냥한 일부 종목 중심으로 영향이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시장 역시 중계권 경쟁이 이미 치열하다. 쿠팡플레이는 NBA 2025-26 시즌 한국어 독점 중계권을 비롯해 EPL, F1 등 50여 개 리그와 대회를 중계 중이다. 네이버 치지직은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확보했고, SOOP과 티빙 역시 각각 AFC 챔피언스리그, WKBL, KBO 리그, WBC 등 주요 종목 중계를 맡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단순히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것보다 중계 품질과 기술력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며 “멀티뷰, 데이터 시각화, 이용자 경험을 얼마나 정교하게 구현할 수 있는지가 중계권 경쟁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네오위즈 영업익 20% 주주환원

네오위즈가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며 주주 가치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공시했다. 지난 23일 발표된 정책에 따르면 네오위즈는 매년 직전 사업연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의 20%를 주주에게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25일 네오위즈에 따르면 이번 정책의 핵심은 명확한 환원 기준과 지속 가능성 확보에 있다. 네오위즈는 향후 3년간(2025~2027년 사업연도) 실적 변동과 관계없이 연간 최소 100억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보장할 계획이다. 영업이익의 20%가 1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 전부를 소각과 배당을 통해 주주 이익으로 돌릴 예정이다.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는 최소 환원 금액 100억원 가운데 50억원을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나머지 50억원을 현금 배당에 활용한다. 이를 통해 주가 안정과 주주 이익 확대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최빛나 기자

LG U+, 전사 차원 ‘AI 기본법’ 대응 가동

고객센터·U+one AI 서비스 대해 법이 요구하는 투명성 확보 의무 이행

LG유플러스는 지난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에 맞춰 인공지능(AI) 개발·이용 사업자로서의 의무 사항을 점검하고, 전사 차원의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공지능 서비스 전반에서 이용자 보호와 신뢰성을 강화하고, 법 시행 초기부터 안정적인 준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현재 개발·운영 중인 인공지능 서비스 전반을 점검한 결과, 고객센터 및 멤버십 통합 앱 ‘U+one(유플러스원)’ 등 인공지능 기본법 적용 대상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 법에서 요구하는 투명성 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기본법 적용 대상 서비스에 대해 인공지능 기반 제공



LG유플러스 용산사옥 전경. /LG유플러스

사실을 이용약관 등에 사전 고지하고,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등 투명성 확보 조치를 적용했다. 아울러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 이해와 준수를 위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또 CTO, 정보보안센터, 법무실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AI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해 인공지능 서비스의 기획·개발·운영 전 과정에서 법 준수가 이뤄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카카오게임즈, SM 아티스트 IP 게임 선택

신작 ‘숨미니즈’로 글로벌 공략

카카오게임즈가 글로벌 캐주얼 게임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25일 카카오게임즈는 자사 신작 모바일 게임 ‘SMIniz(숨미니즈)’를 통해 보는 맛과 손맛을 동시에 살린 팬덤형 캐주얼 게임 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타이틀은 단순 퍼즐 게임을 넘어 아티스트 기반 팬덤 요소를 강화한 것이 특징으로, 기존 캐주얼 포트폴리오의 확장성과 글로벌 수익 모델 확보를 동시에 겨냥했다.

‘숨미니즈’는 전통적인 매치3 퍼즐 장르를 기반으로 팬덤형 수집 및 커스터마이징 경험을 결합한 게임성을 갖췄다. 이용자는 퍼즐 플레이 과정에서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를 테마로 한 포토카드 수집과 답로더 및 덕질존 등

공간 꾸미기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특히 현실 아티스트의 활동 작장을 반영한 코스튬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 몰입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해 12월 글로벌 비공개 베타 테스트(CBT)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정식 출시 전 팬 커뮤니티 형성과 초기 유저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CBT에서는 SM 소속 아티스트 기반 미니즈 캐릭터와 아트워크에 대해 긍정적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신작은 카카오게임즈가 오랜만에 내놓는 캐주얼 장르 신작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회사는 그간 ‘프렌즈팝콘’, ‘프렌즈타운’ 등 카카오프렌즈 IP 기반 캐주얼 게임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경험을 쌓아왔으며, 팬덤 IP 접목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확장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日 국채 금리 4%대 급등… 고개 든 엔캐리 청산 공포

저리 엔화 빌려 타국 자산에 투자 국채금리 변동성 커지며 시장 긴장 “급격한 청산 가능성 적어” 의견도

최근 글로벌 금융가에선 일본의 국채 금리 상승으로 ‘엔 캐리 트레이드’(낮은 금리로 엔화를 빌려 금리가 높은 다른 나라 자산에 투자하는 것) 되돌림 현상이 가속화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정 악화 우려에 지난 20일 일본의 4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 4.246%까지 치솟으며 사상 처음으로 연 4%를 넘어섰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27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엔 캐리 트레이드란 낮은 금리로 엔화를 빌려 다른 국가의 자산, 특히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이다. 이 때문에 일본의 시장 금리가 오르면 미국 주식 등에 투자된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일본으로 복귀하면서 증시 폭락 등으로 글로벌 시장을 출렁인다. 닛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은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엔 캐리 자금 규모를 20조달러(약 2경6700조원)로 추정한다.

◆**日 국채금리 상승, 긴장하는 금융시장**
국채금융센터에 따르면 일본 국채시장의 높은 금리 상승 민감도에 세계 금융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엔 캐리 트레이드’ 되돌림 현상이 가속화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시스

일본의 초저금리를 바탕으로 자리 잡은 ‘엔화 빚투’가 또한번 청산 위기를 맞을 거란 우려 때문이다.

국채 금리 상승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한다. 골드만삭스는 다카이치 총리의 조기총선과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가 2년간 소비세(부가가치세)를 0%로 낮추는 방안 검토 중이다”면서 “이는 연간 약 5조엔(국채발행의 11%)의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재정에 미치는 부담이 클 것이다. 특별한 조달 계획 없이 발표되면서 시장 불안도 증폭됐다”고 평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조기총선(2월8일)

과 함께 식료품 소비세 감면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이와증권은 “일본 정부가 그간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한 각종 부양책을 발표한 후 소비세를 감면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이는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고 채권 금리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채 가격이 내려가자 뱅가드는 올해 일본 장기물 국채 매입을 중단했다. TD증권은 “일본 정부는 그간 확장적 재정에 따른 금리 상승과 엔화 약세 위험을 과소평가 했으나, 시장에서는 동 위험을 중립금리 상승 및 기간 프리미엄

확대를 통해 반영하기 시작했다”면서 “이는 일본 국채 수요 부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일본 국채 금리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지난 23일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했지만 시장에선 일본은행이 이르면 4월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골드만삭스는 “일본 국채금리가 큰 폭 상승했으나, 30년물은 4.5~5.0%로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의 자산군 청산 가능성 vs 급격한 청산 국면 아냐**

세계 금융시장은 국채금리 상승발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재연될까 긴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24년 7월 31일 일본은행이 금리를 연 0.25%로 ‘깎짝’ 인상했는데, 당시 162엔이었던 엔·달러 환율은 140엔대 초반으로 떨어졌다(엔화 가치 상승). 이에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본격화했고, 이 과정에서 글로벌 증시가 폭락했다. 같은해 8월 5일 코스피는 8% 넘게 하락,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블랙 먼데이’로 불리기도 했다.

씨티는 “일본 국채금리의 급격한 변동성 확대는 다른 자산군 특히 미국채 변동성 확대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서 “주식·채권·원자재 등 여러 자산에

동일한 변동성으로 자산을 배분 하는 ‘리스크 패리티(Risk Parity) 펀드들이 미국채만 최대 1300억달러어치 매도할 수 있다”고 했다. 씨티 글로벌 마켓의 아시아 트레이딩 전략헤드인 모하메드 아파바이는 “2024년 7월 이후 한국 국채를 보유한 외국인인 10% 넘는 누적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손절매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반면 일본이 재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일본은행이 다시 국채를 매입하면 엔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실제 지난 23일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의 기자회견 뒤 엔화는 달러당 159엔대까지 떨어졌다. 일본 주요 투자은행(IB)은 옵션시장에서 달러·엔 165엔 도달에 베팅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엔캐리 트레이드의 언와인드가 본격화될 경우 파급 경로는 통상 ‘엔화 강세 → 금리 및 크레딧 시장 변동성 확대 → 주식 및 대체자산 조정’의 순서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다만 현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과거와 같은 전면적·급격한 청산보다는 엔캐리 언와인드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국면으로 보인다”고 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특사경 확대 놓고 금융당국 갈등 수면 위

금감원, 수사심의위 설치 등 제시 금융위 “자체 통제장치 문제 있어”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금감원은 특사경 수사 범위 확대 시 본연의 업무와 시너지가 클 것이라면서도, 공권력 오남용 우려를 의식해 금융위 및 외부 전문 인사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등 자체 통제장치도 협의 테이블에 올렸다. 그러나 금융위는 금감원이 자체 심의위를 통해 수사 착수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 자체가 공권력 통제 측면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간 기업까지 수사?…특사경 확대 놓고 당국 간 파열음**

2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최근 금융위에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을 제출하면서 금융위와 금감원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금융위는 즉각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금감원 제안 상당수에 ‘근거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쪽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감원이 기존에 추진해온 자본시장 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와 민생 특사경 도입을 넘어, 회계감리와 금융회사 검사 영역까지 직무 범위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데 금융위는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 업무를 담당할 경우 시너지가 클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조사·민생범죄 대응뿐 아니라 검사·회계감리 영역에서도

특사경 도입의 실익이 크다고 보고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금융회사 검사 및 회계감리의 목적부터 따져 보고 있지만, 수사로 전환할 명분이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회계감리를 받는 일반 민간기업 전체가 금감원의 잠재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금융회사 검사 과정에서 곧바로 형사 절차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조직 ‘몸집 불리기’나 ‘권한 확대’가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령의 업무보고 당시 지시에 따라 검토 방안을 마련한 것이란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금융당국 업무보고에서 어떤 범위에 특사경이 추가돼야 하는지, 인지 수사권이 필요한지 등을 정리해 총리실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는데, 이에 대한 후속 검토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금융위의 해석은 다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특사경 제도의 일반적인 필요성이나 취지에 대한 발언을 사전인수적으로 곡해하거나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민간기구인 금감원이 민간 기업·금융회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동결, 디지털 포렌식 등 전방위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이 적절할지를 두고 법리적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은 국가 직접 채용, 정치적 중립 의무, 단체행동권 제한, 징계 제도 등을 통해 직무 공정성이 담보되지만, 금감원과 같은 공무 수탁 사인은 이러한 장치가 적용되지 않아 공권력 남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체 ‘통제장치’ 윤곽…동수 수사심의위·증선위 사후보고**

금감원은 특사경 범위 확대와 자본시장 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를 추진하는데 공권력 남용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관건으로 보고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통제방안을 마련 중이다.

검토 중인 방안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와는 별개로 금감원 인지수사 착수를 결정할 심의위를 금감원 산하에 둔다. 위원장은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가 맡되 중립성을 위해 금융위 심의위 위원을 포함해 양 기관의 인원 비율이 최소 동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법률자문관 등 외부위원도 포함한다. 인지수사 상황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 대면 보고한다. 다만 수사 착수 시 보고를 거치면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사후에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조사국의 기획조사 사건만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내용 등을 세칙에 명시해 인지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영장주의 회피 우려를 잠재우고자 수사 전환 이전까지 조사·수사부서 간 정보 교류는 차단하는 내용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금감원 특사경의 역할 강화는 필요하다고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인지수사권 부여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우려한다. 특히 금감원이 자체 심의위를 내부에 두고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 자체가 권한 통제·견제에 적합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미래에셋운용, ETF 명칭 직관적으로 바꾼다

펀더멘털 빼고 플러스 추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그룹주에 투자하는 ETF 3종의 명칭을 변경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TIGER 현대차그룹+펀더멘털 ETF’는 ‘TIGER 현대차그룹플러스 ETF’로, ‘TIGER 삼성그룹펀더멘털 ETF’는 ‘TIGER 삼성그룹 ETF’로, ‘TIGER LG그룹+펀더멘털 ETF’는 ‘TIGER LG그룹플러스 ETF’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번 변경은 해당 상품이 각 그룹의 핵심 계열사에 집중 투자한다는 의미를 투자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TIGER 현대차그룹플러스 ETF’는 국내 유일하게 현대차그룹 주식에 투자하는 ETF로, 피지컬 AI뿐 아니라 조선·방산·원자력·전력기기 등으로 확장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ETF	
상품명 변경 안내	
TIGER 현대차그룹+펀더멘털 ETF	HYUNDAI
➡ TIGER 현대차그룹플러스 ETF	138540
TIGER LG그룹+펀더멘털 ETF	LG
➡ TIGER LG그룹플러스 ETF	138530
TIGER 삼성그룹펀더멘털 ETF	SAMSUNG
➡ TIGER 삼성그룹 ETF	138520

되는 그룹 계열사의 핵심 성장 축을 함께 담고 있다. 23일 기준 순자산은 3796억원으로 연초 이후 약 3배 규모로 성장했고, 개인 투자자 순매수 금액은 1361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익률은 39.94%로 코스피200 수익률(19.20%)을 상회했다.

/허정윤 기자

KB증권, 퇴직연금 수익률 DB·DC 1위

원리금비보장형 상품

KB증권이 지난해 4분기 퇴직연금 사업자 공시 수익률에서 우수한 운용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KB증권은 퇴직연금 원리금비보장형 상품 수익률이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 모두 1위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퇴직연금 수익률 공시 대상 주요 증권사 가운데, KB증권은 원리금비보장형 1년 수익률 부문에서 DB(8.97%)·DC형(23.32%) 1위를 기록했으며, IRP(개인형퇴직연금) 부

문(20.81%)에서도 2위에 올랐다.

또한, KB증권은 IRP 자산 성장 측면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KB증권의 IRP 적립금은 2022년 7698억원에서 2025년 2조9094억원으로 확대되며,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5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해당 성장률은 증권업권 내 최고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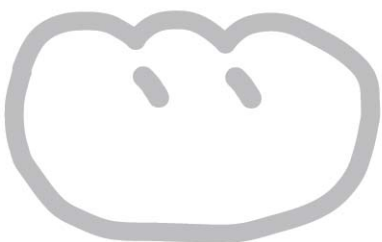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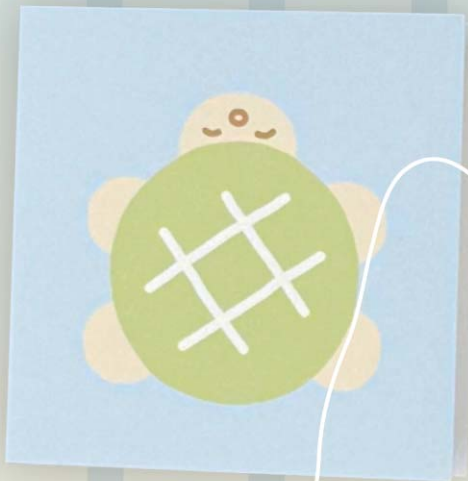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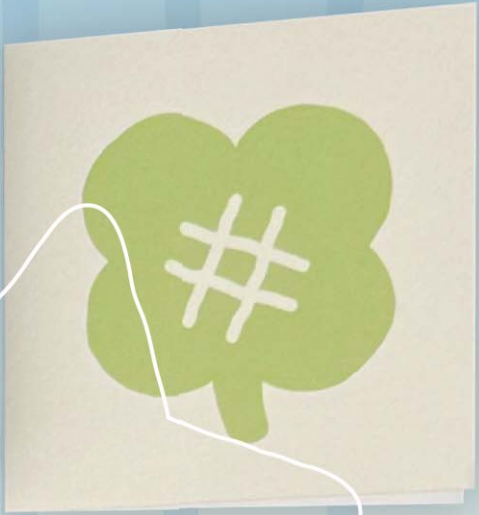
KB증권은 퇴직연금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탄력적인 자산배분 전략과 상품 라인업 확대를 통해 고객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FOLDED

SET

CARD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후카후카스튜디오] 에서 다양한 귀여움을 만나보세요!

인스타그램 @hookka.hookka.studio

공식 홈페이지 ddada.kr

후카후카스튜디오

공식홈페이지 구경하기 ▼



‘저출생 전쟁 3년차’ 경북도, 도민 체감정책 속도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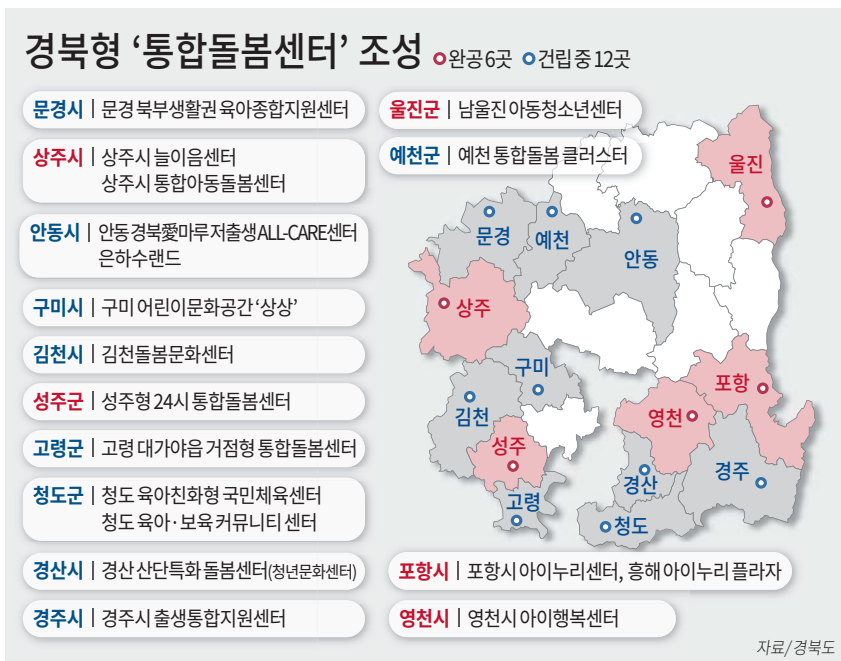
저출생 과제 120대로 재편하고
예산 400억 늘려 4000억 투입
돌봄센터 2028년까지 총 18곳

경북도가 ‘저출생과 전쟁’ 3년 차를 맞아 2025년 한 해 동안 도민 체감형 성과를 현장에서 축적하며 가시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아이친국 육아친화 온종일 완전돌봄 실현’을 목표로 돌봄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형 통합돌봄센터 18개소 가운데 포항·성주·영천·울진 등 6곳은 운영에 들어갔고, 안동·경산·상주·고령·청도 등 12곳은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성된다.

2025년 저출생 대응 주요 사업을 점검한 결과, 만남·출산·돌봄·주거·일생 활균형·양성평등 등 전 주기 정책 전반에서 체감 성과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정책 지표와 연구 성과를 토대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중장기 방향도 함께 점검했다.

만남 주선 분야에서는 청춘동아리 44%, 솔로마을 59%, 칠월칠석 견우직녀 만남의 날 38%의 매칭률을 기록해 70쌍, 140명이 인연을 맺었다. 2025년에는 20대 결혼축하 혼수비용 100만



원을 가구당 지원해 563가구의 결혼 부담을 덜었다.

출산 지원은 임신 사전 가임력 검사 1만1196명, 신생아 집중치료 235명, 예비·초보 부모 행복 가족 여행 674명으로 확대됐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남성 13건을 포함해 여성 9319건을 지원했다. 임신부 대상 출산축하박스 9천 579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8558건, 콜택시 이용 5만7279건 등 생활 밀착형 지원도 병행했다.

돌봄 분야에서는 K보듬6000 누적 15만229명, 아픈 아이 긴급 돌봄 3천 58명, 24시 시간제 보육 3만6967명으로 온종일 돌봄 체계를 강화했다. 조부모 손자녀 돌봄 531명, 방학 중 어린이 중식 2068명 등 틈새 돌봄도 새롭게 보완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210가구, 월세 130가구, 청년 월세 1만184명, 주거환경 개선 49가구를 지원했다. 양육친화형 공

공임대주택 726세대와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 700세대, K-U시티 청년 정주 공동주택 공급도 이어가고 있다.

일·생활 균형을 위해 돌봄 연계 일자리 편의점 매칭 351명, 출산 소상공인 대체인력 215명, 육아기 단축 근로 급여 보전 205명, 다자녀 출산 능가도 우미 1000회, 출산 농가 영농 도우미 70명을 지원했다.

경북도는 2026년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저출생 과제를 150대에서 120대로 재편하고, 전년보다 400억원 늘어난 4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AI 돌봄 정책은 보급·실증·국책사업화의 3단계로 추진해 2월부터 돌봄 시설 10개소에 AI 돌봄 로봇 100여 대를 시범 도입한다. AI 스마트 돌봄 실증 거점 연구를 통해 국가 공모사업과 대형 프로젝트 연계도 추진한다.

아울러 외국인 유입, 고령사회, 청년정책을 아우르는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저출생정책평가센터와 경북 협의체를 통해 정책 효과를 지속 점검한다. 국립 인구정책연구원 유치와 APEC 인구정책 포럼 등 국제회의도 추진해 글로벌 협력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봉화군

내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 총력

봉화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2027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에 나섰다. 군은 23일 사업 보고회를 열고 총 60건, 176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발굴해 전략적 대응을 예고했다.

군은 군청회의실에서 ‘2027년도 국가투자예산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돌입했다. 이번 보고회는 주요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60건, 약 1760억원 규모의 투자사업을 발굴했다.

/봉화(경북)=손기섭 기자

경남도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확대

경남도는 장애인과 임신부,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바우처 택시를 확대 운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교통약자가 일반 택시 이용 시 요금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바우처택시는 병원 진료와 장보기 등 일상생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경남도는 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69% 늘린 75억원으로 편성했다. 지원 차량도 기존 994대에서 1066대로 72대 증차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복권기금은 복권 사업 재원 중 수익금 35%의 17.267%를 시도에 배분하는 것이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하동군

외인 근로자 ‘한국어학당’ 운영

하동군은 농·어촌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원활한 정착과 소통을 위해 ‘2026년 하동 한국어학당’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농·어촌 지역 고령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확대·정착되면서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등 다양한 국적의 근로자들이 하동군에 체류하고 있다.

많은 근로자가 기초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해 근무 현장에서 업무 지시 이해, 안전사고 노출, 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동군 가족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언어·문화적 장벽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교육 과정을 마련했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동남권 5극3특’ 성장엔진 논의

산업통상부 시도지사 간담회 개최
울산시, 지역 주력 산업 중심 건의

울산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 울산시를 찾아 동남권 5극3특 성장엔진 산업군 선정과 관련한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동남권을 중심으로 성장엔진 산업군 선정 방향과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통상부와 동남권 시도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 협의의 장으로 진행됐다.

23일 오전 10시 울산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정관 장관, 김두겸 시장을 비롯해 부산·경남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5극3특 성장엔진 협력과 지역 현안이 폭넓게 다뤄졌다. 주요 논의 사항은 ▲5극3특 성장엔진 추진 현황 및 앞으로 계획 ▲성장엔진 후보 산업군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이었다.

울산시는 조선·미래자동차·차세대 에너지·첨단소재 등 지역 주력 산업을



울산시청.

/울산시

중심으로 한 동남권 성장엔진 지정을 건의했다. 대규모 기업 투자가 진행 중인 산업군에 대해 지역 수요 기반 정책 반영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지역 현안으로는 세계 경기 둔화와 산업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 이동수단 산업의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전주기 전환을 통한 산업 체질 고도화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뒷받침도 요청했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함양군, 체납 징수율 66%… 경남도 1위

상습 체납자 집중 관리 등 효과

함양군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체납 징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체납 징수율 65.9%를 기록하며 경남도 내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남도 평균 체납 징수율 33%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로, 적극적인 체납 관리와 징수 역량 강화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함양군은 2025년 이월 체납액 19억 3700만원 중 12억 7700만원을 징수했으며 총 1만 1799건의 체납을 정리했다. 고액 체납자 징수액은 3억 5000만 원을 달성했다.

군은 이번 성과의 주요 요인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관리, 체납 유형

별 맞춤형 징수 추진, 전화·우편·현장 중심의 체납 안내 강화를 제시했다.

또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채권 압류,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의 분할 납부 유도과 사후관리 체계화도 효과를 거뒀다. 체납 발생 초기부터 체계적 안내와 관리로 장기 체납 전환을 최소화하며 징수 효율을 높인 것도 주효했다.

함양군 관계자는 “이번 체납 징수율 1위 달성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과 공정한 조세 행정 구현을 위한 지속적 노력의 결과”라며 “고액·상습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안내 등 납세자 보호를 병행하는 책임 있는 징수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함양(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주엑스포대공원, 작년 54만명 찾았다

경북문화관광공, 민간협력 성과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경주엑스포대공원이 민간협력콘텐츠 운영을 본격화한 이후 2025년 한 해 동안 뚜렷한 성과를 거두며 지역 관광 활성화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경주엑스포대공원의 2025년 전체 입장객 수는 54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46만 명, 2024년 51만 명에 이어 해마다 증가한 수치로, 개장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이다. 콘텐츠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민간기업 협업 콘텐츠를 목적으로 방문한 행사 목적객은 약 7만5000명으로, 전년 5만4000명 대비

39.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민간콘텐츠 운영 성과는 체류형 관광 확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외부 방문객 가운데 40.6%가 경주에서 숙박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공사는 EX-호러 등 시즌별 대표 콘텐츠를 중심으로 야간 프로그램을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성수기 기간 입장객이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확인됐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이러한 운영 성과를 토대로 2026년에도 민간콘텐츠 중심의 전략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2026 미래 부산 디자인단 밋업데이’ 개최

시민 참여 기반 디자인 문화 확산

부산시는 지난 23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2026 미래 부산 디자인단 밋업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8 세계디자인수도(WDC) 부산’의 주제인 ‘모두를 포용하는 도시, 함께 만들어가는 디자인(Inclusive City, Engaged Design)’을 실현하고 시민 참여 기반 디자인 문화

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래 부산 디자인단과 우리 동네 디자이너 등 2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시민이 일상생활 속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방안이 공유됐다.

시는 디자인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고 일상이 바뀌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 프로젝트로 단계적 운영할 방침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전주상공회의소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

전주상공회의소는 오는 26일부터 지역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고용노동부 주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역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업에는 최대 720만원, 청년에게는 최대 480만~7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인력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과 지역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주(전북)=김종철 기자 kji7219@

오뚜기, 국내 의존 낮춘다… 케어푸드·해외사업 ‘투트랙’

급식·외식 B2B 케어푸드 진입
‘오늘케어’ 독립브랜드 론칭 준비
코스트코 발판 미국 유통 확대
물류센터·미국 생산 추진 강화
내수 편중 완화 체질 개선 초점

내수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며 성장세가 둔화된 오뚜기가 케어푸드와 해외 사업을 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모색에 나섰다. 국내 중심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B2B 케어푸드 시장과 글로벌 유통망 확대를 통해 체질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

오뚜기는 급식·외식·프랜차이즈 등 기업 간 거래(B2B) 채널을 중심으로 케어푸드 브랜드 ‘O’늘케어(오늘케어) 론칭을 준비중이다. 소스와 디저트, 조리 냉동류 등 다양한 제품군을 검토하고 있으며 케어푸드를 전면에 내건 독립 브랜드를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케어푸드는 고령층과 질환 관리가 필요한 소비자를 위한 영양 맞춤형 식품으로 최근에는 개인 맞춤 식단과 식사 대응 수요까지 확산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국내 케어푸드 시장 규모는 2014년 약 7000억 원에서 최근 약 3조 원 수



오뚜기 할랄 진라면 인도네시아 현지 대형마트 내 전용 매대.

준으로 확대됐다.

국내에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병원·요양시설·단체급식 등 B2B 시장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요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케어푸드는 일반 가정식 대비 가격 방어력이 높고 장기 계약 기반의 공급 구조를 갖는다는 점에서 내수 식품기업 입장에서 실적 변동성을 낮출 수 있는 영역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존 강자인 대상웰라이프, 풀무원, CJ프레시웨이 등과 비교하면 브랜드 인지도와 전문성 축적이 과제로 남아 있다.

해외 사업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오뚜기는 지난해 말부터 미국 내 약

60개 코스트코 매장에서 ‘치즈라면(Cheese Ramen)’ 판매를 시작하며 현지 주류 유통 채널에 진입했다. 한인·아시아인 마트 중심의 기존 판매 구조에서 벗어나 현지 소비자 공략에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제품명과 패키지를 영문화하고, 체다·마스카포네·칠리 등 현지 선호도를 반영한 맛 구성을 강화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코스트코 입점을 월마트 등 추가 대형 유통망 진출을 위한 시험대로 보고 있다.

글로벌 인프라 투자도 병행한다. 오뚜기는 울산 삼남공장 부지에 글로벌 물류(로지스틱스) 센터를 건설 중이며, 오는



2026 윈터 팬시 푸드쇼 오뚜기 부스에서 치즈라면을 셰프가 조리하는 모습. /오뚜기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미국 현지 생산공장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할랄(Halal) 인증 제품을 앞세워 동남아와 중동, 아프리카 등 무슬림 시장 공략에도 나설 계획이다.

오뚜기의 이번 신사업은 내수 의존도가 높은 사업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라면과 소스, 조미식품 등 주력 제품 대부분이 국내 시장에 집중돼 있어 소비 둔화 국면에서 실적 변동성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기준 오뚜기의 해외 매출 비중은 10% 초반대에 그쳐, 농심(약 40%), 삼양식품(약 89%)과 비

교해 낮은 수준이다. 농심과 삼양식품이 현지 생산과 다수 SKU 운영을 통해 구조적 해외 매출을 쌓아온 것과 달리 오뚜기는 아직 ‘수출 확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미국 생산기지 구축 계획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물류 비용과 환율 변동에 따른 수익성 부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두 축 모두 중장기 투자 영역인 만큼, 단기 실적 개선보다는 사업 구조 전환에 초점을 맞춘 전략으로 읽힌다. 오뚜기가 ‘국내 강자’라는 기존 정체성을 넘어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체질을 바꿀 수 있을지는 케어푸드 사업의 안착 여부와 미국 생산기지 구축 이후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

한편, 이같은 사업 확장 기조 속에서도 오뚜기의 인사와 승계 전략은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함영준 회장은 오너 3세의 빠른 승진 대신 현장 경험을 중시하는 인사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장남은 내수 사업을, 장녀는 해외 사업을 각각 경험하며 역량을 쌓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브랜드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화가 관건”이라며 “미국 생산기지 구축과 케어푸드 사업 성과가 가시화되면 실적 반등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1억 위스키부터 5~10만원 실속세트까지”

백화점 4사, 오늘부터 설 선물 본판매
캐비어·300만원 한우 ‘초프리미엄’
1·2인 가구 겨냥 소포장 등 이색 경험

국내 백화점 4사가 이달 26일부터 순차적으로 ‘2026년 설 선물세트’ 본판매에 돌입한다. 이번 설 선물 트렌드는 1억 원을 호가하는 초고가 위스키 등 프리미엄 상품과 고물가 시대를 반영한 실속형 상품이 공존하는 소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롯데백화점은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전 점에서 설 선물세트 본판매를 시작한다. 롯데백화점은 희소성을 강조한 ‘엘프리미에’ 라인을 앞세웠다. 대표적으로 전 세계 20명 한정 생산된 위스키 ‘아벨라워 50년’을 단독으로 선보이며 가격은 1억1500만 원에 달한다. 또한 1년에 단 1kg만 얻을 수 있는 ‘알마스 골드 캐비아(130만원)’와 최상급 한우인 ‘설화 로얄(53만원)’ 등 초프리미엄 상품



갤러리아백화점은 알마스 벨루가 캐비어 등으로 프리미엄 제품군을 구성했다. /갤러리아백화점

을 대거 포진시켰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본판매를 진행한다. 신세계는 자체 초프리미엄 브랜드 ‘5-STAR’의 기준을 강화해 마블링 스코어 8~9번 이상의 암소만 선별한 ‘명품 한우 더 시그니처(300만원)’를 내세웠다. 특히 올

물하는 이색 상품이 눈길을 끈다.

현대백화점도 이달 30일부터 압구정 본점 등 전국 점포에서 본판매를 시작한다. 현대백화점은 명절 대표 선물인 한우 물량을 역대 최대 규모인 10만여 개로 늘렸다. 1++ 등급 중 최고 마블링 스코어(No.9)만 선별한 ‘현대명품 한우 넘버나인(300만원)’과 같은 프리미엄 상품뿐만 아니라 1~2인 가구를 겨냥해 200g 단위로 진공 포장한 ‘소담 시리즈’ 등 소포장 세트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본판매를 진행한다. 갤러리아는 35년간 독점 운영해 온 ‘강진맥우’ 선물세트 물량을 30% 늘리고, 마블링 최고 등급인 ‘9+ 특상한우’ 등 정육 부문을 강화했다. 또 30만원대의 알마스 벨루가 캐비어와 250만 원에 달하는 최고 등급 마누카꿀 등 차별화된 식재료를 선보인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특별한 맛·향으로 미식 페어링 완성”

골든블루 ‘천년약속’ 전면 리뉴얼
상황버섯 균사체 발효로 차별화
한식·양식 등 다양한 음식과 조화

전통주가 단순히 ‘마시는 술’을 넘어 ‘음식과 함께 즐기는 술’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골든블루의 ‘천년약속’이 다양한 요리와의 뛰어난 조화로 미식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04년 첫 출시된 천년약속은 상황버섯 균사체를 발효원으로 사용하는 독창적인 제조 방식으로 탄생했다. 효모 대신 상황버섯 균사체를 활용한 이 특별한 발효 기술은 천년약속만의 고유한 맛과 향을 만들어냈다. 천년약속은 출시 이후 부산 APEC 정상회의, 한일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등에서 공식 건배주로 사용되며 품질을 인정받았다.

천년약속의 가장 큰 매력은 어떤 음식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린다는 점이다. 전통 한식은 물론 양식, 일식, 중식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천년약속.

/골든블루

요리들과 조화를 이룬다. 이는 천년약속이 지닌 균형 잡힌 풍미 덕분이다. 강하지 않으면서도 존재감 있는 향, 은은한 단맛, 그리고 깔끔한 뒷맛이 어우러져 음식의 맛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식사의 품격을 한층 높여준다.

골든블루는 2024년 천년약속의 전면 리뉴얼을 단행하며 젊은 소비자층 공략에 나섰다.

/신원선 기자

CU, 식품사막 해소 ‘이동형 편의점’ 운영

시니어 탑승해 진열·판매·응대 맡아
공주서 시범 운영, 신선식품 수요 확인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마트가 없어 장보기가 힘든 산간·벽지 마을을 직접 찾아간다. BGF리테일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부동산원과 손잡고 ‘식품 사막’ 지역 해소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니어 이동형 편의점’을 본격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CU이음가게’를 거점으로 활용한다. 공주시니어클럽이 운영 중인 ‘CU 공주신관로점’을 베이스캠프로 삼아, 22일부터 공주시 계룡면 등 인근 식품 사막 지역에 이동형 편의점 트럭을 파견하기 시작했다.

이동형 편의점에는 시니어 근무자들이 탑승해 상품 진열과 판매, 고객 응대를 담당한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

하거나 교통이 열악해 신선식품 구매가 어려웠던 지역 주민들에게는 쇼핑 편의를 제공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다.

BGF리테일은 이미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청 등과 함께 진행한 시범 사업에서 이동형 편의점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했다. 당시 전북 진안·임실군에서 운영한 이동형 편의점의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정육·채소 등 신선 식재료 비중이 44%에 달했다. 이는 일반 점포(3.9%) 대비 월등히 높은 수치로, 시골 마을의 높은 장보기 수요를 입증했다.

/손종욱 기자

GS25, ‘플레이브’ 협업빵 55만개 돌파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PLAVE)’와 협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GS25는 지난 15일 선보인 플레이브 협업 빵 5종의 누적 판매량이 55만 개를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 누적 판매량 55만 개는 최근 품질 대란을 일으키며 편의점 업계를 강타한 ‘두바이 쫄독 초코볼’의 매출을 3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다. 자사 앱 ‘우리동네GS’ 검색어 순위에서도 2개월

연속 1위였던 두바이 초코볼을 밀어내고 ‘플레이브’가 정상을 차지했다.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GS25는 오는 29일 팬덤의 소장 욕구를 자극하는 후속 상품 3종을 추가로 내놓는다. 60종의 랜덤 피부셀(떼었다 붙였다 하는 스티커)이 들어있는 ‘플레이브 군고마췌(4200원)’와 육각형 패키지에 포토크드가 동봉된 ‘꼬깔콘 군육수수(3600원)’를 선보인다.

/손종욱 기자

제약사 유통망에 스타트업 기술력… 디지털 헬스케어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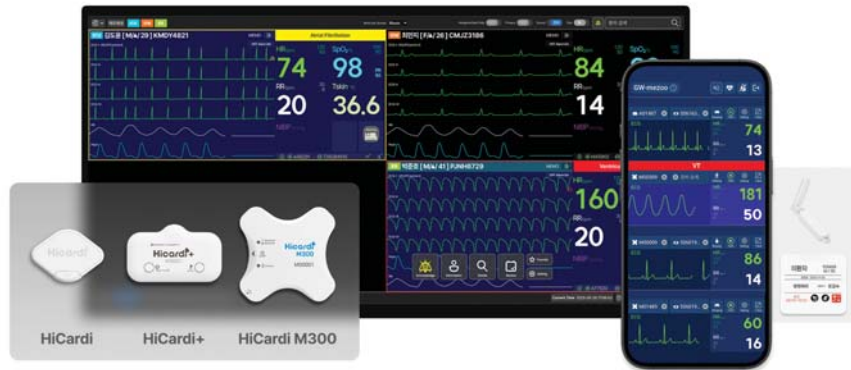
메주, 동아에스티와 파트너십
오는 3월 코스닥 상장 예정
씨어스테크, ‘씹크’ 사업화 속도

국내 제약사의 유통 경쟁력과 의료기기 개발 기업의 기술력이 결합하며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5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메주는 코스닥 상장 절차에 착수했다.

메주는 생체신호 측정, 처리, 분석 관련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제품 설계, 생산 등도 내부에서 직접 운영한다. 특히 동아에스티와 파트너십을 맺고 의료 현장에서 브랜드 입지를 다졌다.

메주는 대표 제품으로 ‘하이카디’를 개발했고 동아에스티가 하이카디 판매를 맡고 있다. 하이카디는 웨어러블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심전도 패치를 환자에 부착하고 스마트폰 등과 연동해 심박수, 체표면 온도, 호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동 제약 없이 환자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하이카디’를 통해 컴퓨터 및 스마트폰 화면에서 생체 신호 데이터를 확인한다. /동아에스티

특징이다.

동아에스티는 2021년 메주에 초기 전략적 투자(SI)와 후속 투자(팔로온)를 단행하고 2022년 ‘하이카디’ 국내 판권 계약, 2023년 해외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동아에스티는 하이카디, 하이카디플러스 등을 국내 700여 개 이상의 병·의원과 상급종합병원에 공급했다. 47개 상급종합병원 중에는 약 53%가 도입했다. 메주와 동아에스티는 전략적 협업을 지속해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메주 코스닥 상장 시점은 오는 3월로

예정됐고 신주 134만5000주를 공모할 계획이다. 주당 희망 공모가는 1만6700원~2만1600원으로 총 공모 예정 금액은 약 225억원~291억원 규모다.

메주는 공모 자금의 상당 부분을 북미·유럽 등 해외 선진시장 진출을 위한 유통망 구축, 현지 영업·마케팅 등 운영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매출처 다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동아에스티 측도 이번 상장은 국내 의료 현장에서 검증된 메주의 이동형 원격 환자 모니터링 기술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메주 전체 매출에서 동아에스티향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83%, 2025년 3분기 누적 81% 등에 달한다.

앞서 코스닥 시장에 안착한 씨어스테크놀로지는 국내 대표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자리를 노린다.

씨어스테크놀로지는 입원환자 관리 시스템 ‘씹크’ 사업화에 속도를 내며 최근에는 씹크 설치·운영·품질을 통합 관리하는 ‘씹크 커넥티드 허브’를 열었다.

씹크는 인공지능 기반 병상 감독 기능을 갖춰 환자의 활력 징후와 상태 변화를 24시간 자동으로 감지해 의료진에게 제공한다. 씹크 커넥티드 허브는 씹크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실시간 고객응대 서비스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씨어스테크놀로지는 주력 사업인 씹크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씹크 사업은 앞서 대웅제약과의 협력으로 본격화 단계에 진입했다. 2024년 3월부터 대웅제약의 전국 영업망을 바탕으로 씹크 판로가 늘면서 2025년에는 한 해 동안 약 1만2000 이상 병상에 씹크가 장

착됐다.

수익성 개선도 이뤄졌다. 씨어스테크놀로지는 지난해 3분기 기준 매출 157억원, 영업이익 68억원을 올렸다.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500% 급증하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다.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한 매출은 278억원, 영업이익은 78억원으로 2024년 6월 상장 후 1년 만에 실적 반등세를 기록했다. 이러한 호실적은 대웅제약을 통한 판매 확대가 견인했다. 대웅제약 매출 비중은 2024년 92%, 2025년 3분기 누적 99%까지 커졌다.

씨어스테크놀로지 측은 “향후 병상 확대, 서비스 고도화, 신규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연계까지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내 의료기기 스타트업 관계자는 “투자 유치를 넘어 협업 구조가 기업 성장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로 보고 있다”며 “디지털 전환 등 시장구조적 수요나 최신 기술력 향상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에스티팜, 美 바이오텍과 825억 규모 계약

올리고 핵산 치료제 원료의약품 공급
공급망 통합 플랫폼 통해 경쟁력 강화

동아쏘시오그룹의 올리고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회사 ‘에스티팜’은 미국 소제 글로벌 바이오텍으로부터 5600만 달러(약 825억원) 규모의 올리고 핵산 치료제 원료의약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원료의약품은 중증 고중성지방혈증 치료제로 상업화 예정인 글로벌 신약에 사용될 예정이다. 고객사 및 제

품명은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며, 계약기간은 오는 12월 18일까지다.

이번 수주는 에스티팜 최근 매출액 2737억원(2024년도 연결 매출 기준) 대비 30%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수주 잔고도 전년 3분기 대비 약 30% 가량 증가했다. 에스티팜은 지난해 제2올리고동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늘어나는 시장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성과라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에스티팜은 글로벌 회사들의 임

상 단계는 물론 상업 생산까지 공략하고 있다. 일관된 품질을 구현할 수 있는 공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불순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임상부터 상업화까지 전 주기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기술·규제·공급망 통합 플랫폼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에스티팜 관계자는 “조기 개발 단계부터 공정·분석·변경허가까지 고객사 요구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올리고 핵산 치료제 원료의 안



에스티팜 반월캠퍼스 전경. /동아쏘시오그룹

정적인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온코닉테라퓨틱스 ‘자큐보정’ 위궤양 치료 효과 입증

제일약품의 신약 연구개발 기업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정’의 위궤양 환자 대상 임상 3상 연구결과를 국제 학술지 ‘거트 앤 리버’에 게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임상은 국내 39개의 의료기관에서 위궤양 환자 329명을 대상으로 수행됐다. 자큐보 20mg을 최대 8주간 투여해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연구 결과, 자큐보는 높은 궤양 치유율과 임상적 안전성 프로파일을 입증했다. 8주 치료 후 모든 자큐보 투여군 환자(100%)에서 내시경적 궤양 치유가 나타났다. 특히 투여 4주차에서 93.84%의 치유율을 기록해 투여 초기부터 의미있는 회복 양상을 보였다.

온코닉테라퓨틱스 측은 “복용 초기부터 위산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억제하는 자큐보의 약물 특성이 실제 임상 치료 성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궤양 크기 역시 치료 전 대비 개선됐다. 평균 궤양 크기가 4주 만에 1mm 미만으로 감소했고 8주 시점에서는 대부분의 환자에서 궤양이 관찰되지 않았다. 자큐보가 점막 치유 자체를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위궤양 치료 영역에서 자큐보 경쟁력을 지속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난해 6월에는 자큐보 적응증에 위궤양 치료를 추가하기도 했다. 현재는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및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유도성 궤양 예방을 적응증으로 확보하기 위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온코닉테라퓨틱스 관계자는 “치료 목적뿐 아니라 예방 영역까지 포함, 산분비 관련 질환 전반에서 자큐보 역할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동국제약 “고함량 비타민으로 구내염 치료” HLB, ‘리라푸그라티닙’ 암종불문 연구

‘오라비텐엑티브정’ 출시

동국제약이 구내염 치료제 전문 브랜드 ‘오라’에서 신제품 ‘오라비텐엑티브정’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오라비텐엑티브정은 기존의 오라비텐정을 재단장한 고함량 기능성 비타민이다. 비타민 B2를 활성형으로 변경하

고 활성형 비타민 B6를 추가해 구내염 관리 효과를 높였다.

주성분인 활성형 비타민 3종인 B1, B2, B6는 체내 비타민 B군 결핍과 피로 누적, 체력 저하로 나타나는 구내염을 개선해 준다. 비타민 B6·B3, 판토텐산칼슘, D-비오틴, 엽산, 비타민 C·E, 아연 등 항산화 성분도 더해졌다. /이청하 기자

“미래 항암제 시장 공략”

HLB가 지난 22일 미국 국립보건원(NIH) 임상시험 등록 시스템 ‘클리니컬트라이얼’에 리라푸그라티닙 글로벌 임상 2상 ‘ReFocus202’을 공식 등록했다고 25일 밝혔다.

리라푸그라티닙은 표적 항암제로, 섬유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인 FGFR2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기전을 갖췄다. 암세포 성장, 분화 등과 관련된 신호 전달에 관여한다.

해당 임상은 FGFR2 변이를 기준으로 암종에 관계없이 작용하는 ‘암종불문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암종불문 치료 전략에 맞춰 임상 설계를 변경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다.

ReFocus202는 미국·프랑스·한국·스페인·영국 등 5개 국가 18개 기관에서 시행된다. FGFR2 유전자 융합 또는 재배열을 보유한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동아제약 ‘챔쿨 열냉각시트’

영유아 맞춤형 쿨링 패치

동아제약은 영유아 맞춤형 쿨링 패치 ‘챔쿨 열냉각시트(사진)’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챔쿨 열냉각시트는 영유아 이마에 알맞은 가로 9cm, 세로 4cm 크기를 갖췄다. 시트를 붙였을 때 눈썹이나 머리카락에 닿는 불편함을 줄였다. 부착면에는



밀착된다. 알로에베라와 판테놀 성분을 더해 피부 자극도 최소화했다. 파라벤, 색소, 향료 등은 첨가하지 않았다.

/이청하 기자



AI·데이터·연계플랫폼 초월기업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 클라우드 하이브리드형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NH농협금융지주, '생산적금융 특별위원회' 출범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23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생산적금융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가운데)이 '생산적·포용금융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금융



한국동서발전, '농어촌 ESG실천인증기관' 선정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22일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한 2026년 농어촌상생기금 워크숍에서 4년 연속 '농어촌 ESG 실천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동서발전 사회공헌부 구완모 차장(왼쪽), 김태준 부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동서발전



동아쏘시오그룹,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

동아쏘시오그룹은 지난 22일 경북 상주에 위치한 동아쏘시오그룹 인재개발원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50여 명의 신입 사원들은 서툰 손길이지만 정성을 다해 김장김치를 직접 버무리고 포장해 취약가구에 전달했다. /동아쏘시오그룹

소진공

‘로컬기업 육성사업’ 기관 모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내달 5일까지 '2026년 로컬창업 기업 육성 사업'을 운영할 주관기관을 모집한다.

25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번 주관기관 선정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로컬크리에이터 육성·강한 소상공인 사업을 통합 운영해 창업부터 도약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과 지역 균형발전 기조에 맞추어 전국 '5국3특'을 전담할 8개 기관을 선정하며, 권역별 로컬창업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투자사, 지역 창업 기관, 민간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으며 권역별로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인사

◆국가보훈부 ◇국장급 승진 △국립대전현충원장 김정연

부음

▲신순자씨 별세, 오우택(한국투자캐피탈 대표이사)·영란씨 모친상, 나병록씨 빙모상, 신성주(전 강남구약사회 회장)씨 시모상, 나호제·오정수·오준식씨 조모상=24일, 여의도성모병원장례식장 2호실, 발인 27일. 02-3779-1526.

▲박윤경(대성학원 실장)씨 별세, 박지민(MBC 뉴스 영상국 부장)씨 부인상, 박형원·경원씨 모친상, 박창훈(신세계부산 오프라벨 대표)씨 누님상=23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 발인 27일. 02-2258-5922.

이미경 CJ 부회장, 포브스 ‘글로벌 여성 50인’ 선정

한국 영화 세계화 결정적 역할
“글로벌 문화 생태계 확장 기여”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이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50 Over 50: Global' 명단에 포함됐다. 해당 리스트는 전 세계 36개국에서 활동 중인 리더와 창업가, 크리에이터, 혁신가 가운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50세 이상 여성 50인을 선정한 것이다.

포브스는 이 부회장을 한국 영화의 세계화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했다. 특히 2019년 제작에 참여한 영화 기생충이 이듬해 비영어권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점을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다.

포브스는 “이 부회장은 1994년 CJ그룹 내 엔터테인먼트 부문을 출범시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화보. /Vanity Fair

키며 한국 영화·콘텐츠 산업의 성장 토대를 구축했다”며 “같은 시기 미국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드림웍스의 창립 투자자로 참여하는 등 글로벌 콘

텐츠 산업과의 협업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했다.

최근 행보 역시 주목했다. 포브스는 이 부회장이 아시아계 창작자와 아시아 스토리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레이블 ‘퍼스트 라이트 스토리 하우스’를 공동 설립한 점을 언급하며, 한국을 넘어 글로벌 문화 생태계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포브스는 2021년부터 매년 연령과 성별의 한계를 넘어 두드러진 성과를 낸 50세 이상 여성 리더를 조명하고 있다. 올해 명단에는 이 부회장과 함께 일본의 여성 정치인 다카이치 사나에, 오스카상을 수상한 스페인 배우 페넬로페 크루즈 등이 포함됐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별세

〈前 국무총리〉

베트남 출장 중 건강악화



긴급 이송됐다”며 “현재 유가족 및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1952년 충남 청양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다니던 1974년 민청학련 사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에 연루돼 옥고를 치렀다. 고인은 1998년 관악읍에서 13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14·15·16·17·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2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2019~2020년 더불어

민주당 대표를 역임했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부터 이듬해까지 제38대 교육부 장관으로 일했다. 당시 교육전문가가 아닌 재야 출신 정치인이 교육부 장관에 오른 것은 파격으로 인식됐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6대 국무총리를 지냈다.

고인은 2020년 8월 민주당 대표직을 마치면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이후에도 민주당 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치적 멘토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으로는 아내 김정옥 여사와 딸 현주씨가 있다. /서예진 기자 syj@

SKT

‘AAAI2026’ 현장 발표

SK텔레콤은 싱가포르 엑스포에서 열리고 있는 글로벌 인공지능(AI) 학회 ‘AAAI 2026’에서 AI 추천 모델 관련 연구 논문이 초청돼 지난 24일 현장 발표를 진행했다.

AAAI는 신경정보처리시스템학회(NeurIPS), 국제머신러닝학회(ICML), 표현학습국제학회(ICLR)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AI 학회로 평가된다. 이번 논문은 전체 제출 논문 중 상위 약 4%만 선정되는 현장 발표 대상으로 채택됐으며, 포스터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발표된 연구는 SK텔레콤이 개발한 LLM 기반 AI 추천 모델 ‘One Model(원 모델)’ 버전 4.0을 다뤘다. 최근 AI 연구 분야에서 주목받는 ‘추론 능력 강화학습’을 실제 서비스 환경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원 모델’ 버전 4.0은 고객의 클릭, 이용 이력, 관심사 등 다양한 행동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할지와 함께 추천 이유, 전달할 마케팅 메시지를 자연어로 생성하는 모델이다. /김서현 기자 seoh@



BNK부산은행은 지난 23일 기장 연수원에서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

/BNK부산은행

김성주 “지역경제 새로운 파도 만들것”

〈BNK부산은행장〉

BNK부산은행 경영전략회의

‘다이나믹무브, 메이크 웨이브’ 목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 방식 혁신과 영업 생산성 제고, 현장 중심의 책임경영을 통해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자. 자율과 실행이 살아 있는 조직문화 정착을 통해 힘차게, 즐겁게, 새롭게 만드는 금융을 실천해 나가자.”

김성주 BNK부산은행장은 지난 23일 기장 BNK부산은행 연수원에서 개최한 ‘상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BNK부산은행은 해양금융과 생산적금융을 양대 축으로 삼아 지역 경제의 새로운 파도를 만든다는 ‘다이나믹 무브, 메이크 웨이브(DYNAMIC MOVE, MAKE WAVE)’를 경영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는 김성주는 행장을 비롯해 경영진 및 부·실점장 등 240명이 참석했다.

BNK부산은행은 이날 ▲현장 중심의 역동적인 영업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금융 등 핵심 추진 목표를 제시하고, 지역 산업과 실물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구상을 마련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학생참여단 민서홍 대표와 학생인권위원회 윤명화 위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정근식 교육감의 기념사가 이어진다. 이어 김영배 국회의원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최재만·박유진 의원, 박경서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의 축사가 진행된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강경숙 국회의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영상 축하도 함께 마련된다.

이후 전국 시·도 교육감과 서울 지역 구청장들의 축전 소개를 비롯해 표창 및 감사장 수여, 예음예술학교 학생들의 축하 공연, 학생인권조례 조문 낭독이 이어진다. 학생참여단의 정책 제안 전달과 인권에 대한 학생 발언, 인권 나무 만들기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lhj@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설 성수품 원산지 점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의 원산지 둔갑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3주간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원산지표시 관련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2월 중순 설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할 쌀·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 용품을 비롯해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특산품이 대상이다.

농관원은 과거 위반사례가 많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해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롯데호텔 월드

설 연휴 가족 이벤트

롯데호텔 월드가 설 연휴 기간 호텔 곳곳에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선보인다.

호텔 1층 로비에서는 설 연휴 기간 매일 오후 3시부터 30분간 ‘윈터 로비쇼’를 진행한다. 투숙객 전용 키즈라운지에서는 오후 5시 30분부터 25분간 ‘윈터 키즈쇼’가 운영된다. 뷔페 레스토랑 라세느는 오후 12시 15분부터 30분간 ‘윈터 다이닝’을 선보인다.

윈터도어 이용 가능한 호텔 패키지 고객에게는 설 연휴 포함 2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롯데월드 어드벤처 개장 15분 전에 미리 입장할 수 있는 ‘윈터 타임’ 혜택도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NARA CELLAR

역시!
몬테스

결국!
몬테스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와인 부문 2년 연속 1위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도산 시 자동 해지 조항, 만능키 아니다



박 규 익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각종 거래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들은 거래대금 수령에 대해 확실한 보장을 받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 여러 가지 페널티를 부과하는 조항들을 계약서에 삽입하곤 한다. 이때 흔히 포함되는 것이 ‘도산 등의 사유로 채권 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른바 도산해지조항이다.

법원은 도산해지조항 자체를 무효로 보지는 않는다. 민법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어디에도 도산해지 조항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도외시킨 채 도산해지 조항이 언제나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본다면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의 도산으로 초래될 법적 불안정에 대비하려는, 보호 가치 있는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무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다. 따라서 도산해지조항이 부인권의 대상이 되거나 공서양속에 반해 그 효력이 부정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도산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산해지 조항을 통해 실질적인 채권 보호를 받는 것은 쉽지 않다. 우선 회생절차에서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해 관리인에게 선택권이 부여된다. 즉,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계약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해제할 것인지는 관리인의 판단에 맡겨진다. 이 때문에 채권자인 계약 상대방이 도산해지 조항을 근거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은 ▲ 권리자가 회생절차에서 본인 태도와 그 절차에서 부여받은 지위 ▲ 해지권을 행사할 당시 회생절차의 진행 단계 ▲그 권리 행사가 회생절차 및 다른 회생당보권자·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회생절차의 목적에 반하

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지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회생절차 중 채무자 A를 상대로 리스계약에 따른 도산해지 조항을 근거로 계약해지권을 행사하고 리스한의료기기의 반환을 청구한 채권자 B에 대해, 대법원은 “B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회생당보권자로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했고, 채무자 A가 의료기기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수립된 회생 계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으며, 의료기기가 반환될 경우 채무자 A의 회생계획의 정상적인 수행과 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지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법원이 도산해지 조항 자체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채권자 입장에서는 도산해지조항의 활용을 모색해 볼 여지는 충분하다. 다만 그 실효성은 도산절차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상당히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안 발생 시 전문가와 함께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바른

AI가 대신할 수 없는 것



기지 수집
나 유 리
(금융부)

“인공지능(AI)에 대한 관리자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기본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10여 년 전 로봇저널리즘을 연구하며 인터뷰를 진행하던 당시, 한 지인이 했던 말이다. 그 무렵만 해도 많은 기자들은 AI가 언론 환경에 미칠 영향을 크지 않게 봤다. 현장에서는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인식이 우세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온 이 한마디는 당시에는 다소 과장처럼 들렸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면, 기술 그 자체보다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느냐, 그리고 그 판단과 책임을 누가 지느냐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

는 점을 비교적 정확히 짚은 말이었다.

최근 금융업에서 강화되고 있는 내부통제 논의도 결국 같은 질문으로 이어진다. AI 기반 심사와 자동화된 리스크 관리, 알고리즘 의사결정이 일상화되고 있지만, 이를 실제로 이해하고 점검할 수 있는 관리자의 역할은 여전히 제도 안에서 추상적인 상태다.

통제의 필요성은 반복해서 강조되지만, 무엇을 어디까지 관리해야 하는 지에 대한 기준은 분명하지 않다.

AI 활용 역량과 내부통제는 이제 분리해서 보기 어려운 과제가 됐다. 알고리즘이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통제는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 ‘사람이 최종 책임자’라는 원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책임을 지기 위해 필요한 이해 수준과 판단 기준, 점검 절차가 함께 구체화되어야 한다.

현재 금융당국이 제시한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역시 방향성은 분명하지만, 상당 부분은 금융사의 자율에 기대고 있다. 3중 내부통제 장치와 고위험 AI 승인 절차도 제도적으로는 촘촘해 보이지만, 윤리원칙이 선언에 머물거나 전담 조직이 자문기구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최고경영자(CEO) 보고 체계 역시 책임 강화를 의도했지만, 현실에서는 ‘보고를 했다’는 사실이 면책 논리로 작동할 여지도 있다.

결국 관건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다. AI 내부통제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이해하고 점검하며 책임질 수 있는 관리 역량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의 문제다. 기술 도입 속도에 비해 통제의 기준과 역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AI는 효율의 도구가 아니라 또 하나의 리스크로 남을 수밖에 없다.

/yul11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월 26일 (음 12월 8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만나고 싶은 사람과 헤어진다. 48년생 가족이 단합해 능률상승. 60년생 칠전팔기의 투지력이 필요하다. 72년생 자녀는 어머니를 존경하면서 도덕을 배운다. 84년생 마음속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면 어려움은 물러간다.



소

37년생 사업가는 어려움에서 벗어나 뜻대로 이뤄진다. 49년생 누명 쓸 수 있으니 과잉친절 삼가라. 61년생 매출이 늘어나 기쁘다. 73년생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고독하나 자립자득이다. 85년생 계획을 세워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호랑이

38년생 운기가 상승하니 백마 타고 길을 달리는 길일이다. 50년생 종일 불조심. 62년생 이익이 따르고 기다리던 소식 온다. 74년생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책임지는 것. 86년생 배수가 막히면 건강상실이니 배수 시설 점검토록.



토끼

39년생 타인의 잘못에 조금은 관용을 베푼다. 51년생 끈기 있게 기원하니 소원성취. 63년생 인자한 칭찬을 들어 업무능력이 높아진다. 75년생 귀인이 돕게 되어 매매가 활발. 87년생 등을 돌린 사람 품었더니 새로운 일거리가 온다.



용

40년생 새로운 일과 함께 재운이 꽃핀다. 52년생 남을 비난하려거든 나를 먼저 돌아보도록. 64년생 인기인이 되기 위해서 도전. 76년생 행운을 사냥하려는 것은 인색한 욕심일 뿐. 88년생 남쪽만 피하고 영업한다면 이득 발생.



뱀

41년생 문서입찰에 서광이 비치니 경사가 겹쳤다. 53년생 집안이 화목하니 모든 일에 만족. 65년생 정면 돌파를 시도하라. 77년생 일은 인생의 권태를 몰아내니 바쁘게 살도록. 89년생 지성이면 귀신도 움직인다 했으니 기도해볼 것.



말

42년생 같은 띠를 다스 경계해야 할 듯. 54년생 디자인으로 실력을 인정받아 결과가 매우 좋다. 66년생 오전오후 하루 종일 운전조심 하도록. 78년생 오후에 배우자에게 기쁜 소식이 온다. 90년생 어제의 근심이 사라지니 평안을 찾는다.



양

43년생 한군데만 아파도 죽을 것 같으니 건강 신경을. 55년생 오전11시 지나 행운이 찾아온다. 67년생 시험이 길하게 펼쳐져 자신이 있다. 79년생 돼지꿈을 꾸어서 부동산 계획한 소망이 이뤄진다. 91년생 해외에서 반갑게 소식 오는 날.



원숭이

44년생 상대의 짜증을 받아 주면 착각이 이어진다. 56년생 자녀의 승진 공부 책상 방향은 진(辰) 방향으로. 68년생 노력 끝에 큰 결실을 얻는다. 80년생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는 행운이 있는 날. 92년생 새 햇살 비추니 금전 소식 듣는다.



닭

45년생 오늘 만난 호랑이따위는 신중히 거래. 57년생 티끌 모아 태산만큼 노력도 중요하다. 69년생 가만히 누워있는데 감 떨어지는 행운이. 81년생 임대차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93년생 실패의 원인을 다시 진단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개

46년생 손재가 발생하지만 내 탓이니 누굴 탓하라. 58년생 문제의 본질을 두고 흥분하지 마라. 70년생 축하의 꽃다발을 가는 날. 82년생 정성껏 기도하면 오늘의 어려움이 희석된다. 94년생 화목하게 지내다 보면 다시 길이 열린다.



돼지

47년생 문서매매로 목돈 들어와도 소문내지 말 것. 59년생 먼 곳에서 반가운 소식. 71년생 음주운전 삼가고 퇴근 후 바로 귀가. 83년생 알프스를 넘어 모스크바를 가는 것은 정신의 힘에서. 95년생 친구이혼에 공연하 동조하지 말 것이다.



김상회의四季

토정비결과 신수

친근하게 사랑받아온 전통적인 점복서占福書로 토정비결(土亭秘訣)이 있다. 조선시대 중기 때 학자로 포천 현감과 아산현감 등 나라의 관료 생활을 한 토정 이지함이 썼다고 알려졌지만, 학계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본다. 이유는 이지함 사후 한참 후에나 토정비결이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지함의 개인 문집에도 토정비결이 들어있지가 않고 동시대 다른 사람들의 글에도 토정이 토정비결을 썼다든가 하는 언급도 없기 때문이다. 진실은 알 수 없으나 토정 선생은 풍수를 잘 보기로 유명했고, 주역과 도참에 능한 서경덕에게 학문을 사사하였다는 사실도 있다. 실제 그는 이런저런 비기에 능했으므로 도참서의 저자로 소문이 퍼졌을 수 있다.

토정은 고려말 이름 높은 학자인 이색의 후손이며 대대로 명망 있는 학자와 관료 집안임으로 사대부가의 인물이 도참서를 썼다고 공공연히 밝히기는 어려웠을 거다. 토정이 썼든 아니든 간에 무엇보다 해가 바뀌는 때는 일반 가정에서는 토정비결로 온 가족의 일 년 신수를 살폈다. 옛 사람들은 태어난 시간까지 아는 경우가 드물어 태어난 연월일만 가지고 운수를 보는 토정비결이 훨씬 접근성이 좋았을 것이다. 무엇보다 한문 아래 한글로 설명이 달려있으니 한문을 모르는 일반 평민들에게는 말 그대로 친근한 운수 예측서였다. 필자의 어린 시절에 길거리에 좌판을 깔고 편안한 가격에 토정비결을 바꾸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들도 있었고, 작은 공책 크기의 토정비결 한 장을 받아서는 반 딱지 점듯이 고이 접어 들고 와서는 일 년 총 운세와 달마다 월간 운세를 펴보며 한달 한달 참고를 했던 기억도 정겹다. 인기 만화였던 ‘검정 고무신’에서도 주인공 기영이의 할아버지가 토정비결로 손자들의 운을 점치는 장면이 나온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종
인쇄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4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45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칸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스도쿠3650

스도쿠3650

스도쿠365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레코드를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9	7	4	6	9	8	2	1
2	9	6	8	8	1	4	9	7
4	1	8	2	7	9	6	8	9
7	8	4	6	2	8	1	9	9
9	2	9	1	4	8	7	6	8
1	6	8	9	9	7	2	4	8
9	8	2	7	1	4	9	8	6
6	7	9	8	9	2	8	1	4
8	4	1	9	8	6	9	7	2

7	8	2	4	8	6	1	9	9
9	8	4	1	9	7	6	8	2
6	9	1	2	8	9	4	8	7
4	2	7	8	1	9	9	6	1
4	6	9	7	2	8	6	1	9
9	1	8	6	9	4	7	2	8
2	4	8	9	6	1	9	7	8
8	7	6	9	4	2	8	9	1
1	9	9	8	7	8	2	4	6

‘서울-지방’ ‘인문-자연’ 대학, 취업률 격차 최저수준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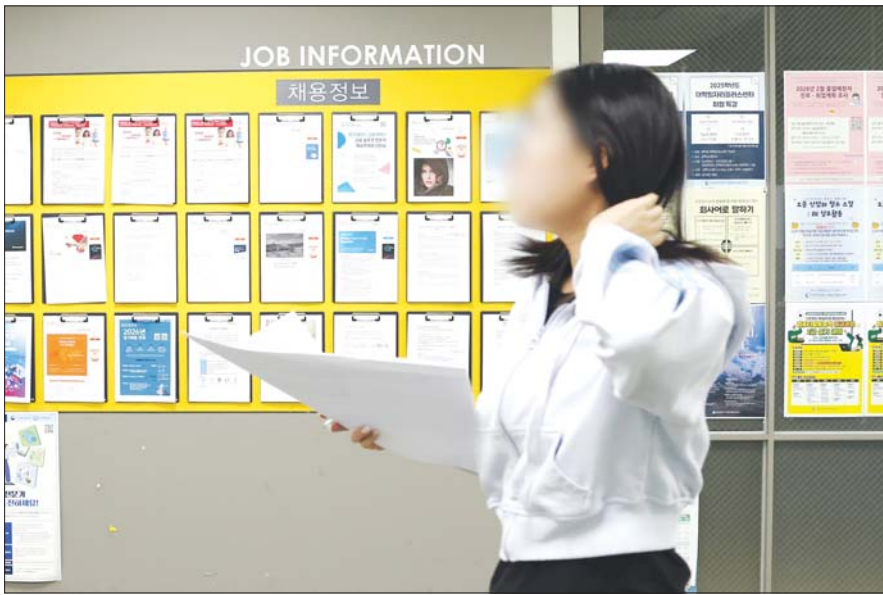
<5.2%p>

<3.4%p>

지난해 공시기준 분석 결과
서울-지방, 최근 6년 새 최저
인문-자연, 10년 새 최저 수준
전년비 취업 어려워진 영향

서울과 지방, 인문과 자연계열 간 대학 취업률 격차가 최근 10년 새 가장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졸업생 취업 환경은 전반적으로 더 어려워진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 취업률 하락이 격차 축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 공시 최근 10년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220개 대학(서울 43개 대학·경인 41개 대학·지방 136개 대학)을 분석한 결과, 2025년 공시 기준 서울권과 지방권 취업률 격차가 5.2%p로 2020년 이후 6년 새 최저 수준까지 좁혀졌다. 분석 대상은 사이버대·방송통신대·의대·산업체 위탁 및 계약학과 등을 제외한 순수 일반대(일반학과) 기준이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학생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

연도별로 보면 서울-지방 취업률 격차는 ▲2020년 6.4%p ▲2021년 7.5%p ▲2022년 7.2%p ▲2023년 6.1%p ▲2024년 5.9%p ▲2025년 5.2%p 등으로 축소되는 흐름이 이어졌다.

2025년 공시 기준, 권역별 평균 취업

률은 서울권 65.1%, 경인권 64.4%, 지방권 59.9%였다. 지방권을 권역별로 나누면 충청권 44개 대학이 62.6%로 가장 높고, 강원권 12개 대학 60.6%, 제주권 2개 대학 59.5% 순으로 나타났다.

계열 간 격차도 축소됐다. 2025년 인

문계열 취업률은 59.9%, 자연계열은 63.3%로 격차가 3.4%p에 그쳐 최근 10년 새 최저치로 좁혀졌다. 인문·자연 간 취업률 격차는 ▲2016년 6.0%p ▲2017년 5.4%p ▲2018년 6.6%p ▲2019년 6.9%p ▲2020년 6.3%p ▲2021년 6.5%p ▲2022년 5.1%p ▲2023년 6.0%p ▲2024년 5.1%p ▲2025년 3.4%p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모두 자연계열 취업률이 인문계열보다 높게 형성됐다.

대학별로는 서울권 주요 10개 대학 가운데 인문계열에서 ▲서강대 73.4% ▲서울대 70.3% ▲고려대 69.4% ▲성균관대 68.9% ▲연세대 67.4% ▲한양대 66.6% ▲중앙대 65.9% ▲한국외대 65.0% ▲경희대 61.6% ▲이화여대 60.4%로, 대부분 대학이 60%대 이상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자연계열에서는 ▲성균관대 74.0% ▲서강대 72.5% ▲한양대 72.1% ▲고려대 72.1% ▲중앙대 70.8% ▲서울대 68.2% ▲연세대 65.9% ▲경희대 64.9%

▲이화여대 63.3% ▲한국외대 61.1%로 나타났다.

지방권 주요 대학으로는 지거국 및 지방권 주요 사립대 가운데 인문계열 ▲제주대 61.1% ▲연세대(미래) 58.0% ▲충남대 56.5% ▲강원대 54.7% ▲고려대(세종) 54.6%가, 자연계열에 서는 ▲연세대(미래) 63.2% ▲부산대 63.0% ▲고려대(세종) 62.5% ▲충남대 62.2% ▲전북대 59.5%순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격차가 줄어든 현상을 긍정적으로만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서울·지방, 인문·자연 모두 취업이 전년 대비 어려워진 구도 속에서 격차가 축소됐고, 상대적으로 서울권과 자연계열에서 취업이 더 어려워진 흐름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지방권 대학의 공공기관 취업의 무화 등 취업 관련 정책이 실제 취업 상황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서울·지방 간 격차는 추가로 줄어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 취약계층에 난방비 393억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39.3만 가구에
가구 당 10만원씩 난방비 지급

최근 서울시 기온이 영하 14℃까지 떨어지고 한반도 전역에도 강한 한파가 찾아온 가운데, 서울시가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 393억원을 지원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관내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35만 가구,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5000 가구와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회원, 차상위자활,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3만8000 가구까지 총 39만 3000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0만원씩 난방비를 지급한다.

시는 보편적 지원에 방점을 두고,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 없이 수급 자격 보유 여부만으로 난방비를 지원한다.

특히 별도 신청 없이 각 구청을 통해



연일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25일 경기 김포시 일산대교 일대 한강에 유빙이 떠다니고 있다.

/뉴스

대상 가구를 확인한 뒤 가구당 대표 계좌에 난방비를 입금해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늦어도 2월 둘째 주까지 지급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계좌 미등록자, 압류방지 통장 사용자 및 기타 사유로 통장 개설이 어려운 가구에는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한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으나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해 실제 느껴지는 물가 상승률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한국도시가스협회 통계월보에 따르면 가구당 난방비는 2024년 1월 9만8825원에서 지난해 1월 10만6269원으로 올라,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추운 겨울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윤종장 복지실장은 “지난 12월에 내린 첫눈이 폭설로 기록될 만큼 최근의 기후 변화는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을 보이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은 고물가, 경기침체까지 겹쳐 한파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이번 난방비 지원이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고, 추운 겨울을 버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감사원 “고양시청사 이전, 위법성 없어”

백석업무빌딩 활용 등 법적논란 마무리

고양시 시청사 이전을 둘러싸고 고양시의회가 감사원에 제기한 공익감사청구 5건이 모두 위법사항이 없거나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종결됐다.

고양시는 지난 23일 감사원이 시의회가 지난해 9월 제출한 ‘고양특례시 시청사 이전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전항목 종결 처리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시청사 이전과 백석업무빌딩 활용을 둘러싼 법적 논란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고양시의회는 제297회 임시회를 통해 민선 8기 시정에서 추진된 시청사 백석업무빌딩 이전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청구 사안은 이전 발표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백석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소송의 조기 종결, 소송 관련 가압류 해제 이후 근저당 설정, 기

존 시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특정감사의 적정성,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의 예비비 사용 등 총 5개 항목이었다.

감사원은 지난 16일 검토 결과를 통보하며, 이전 발표 절차와 기부채납 이행 소송 조기 종결, 근저당 설정과 관련한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또한 시가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와 타당성 조사 용역비 집행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시의회가 문제 삼은 모든 사안이 법적 하자가 없거나 감사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진 셈이다. 고양시는 이번 결정이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백석업무빌딩 부서 재배치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데 이은 후속 결과로, 백석업무빌딩을 시청사로 활용하는 행정 전반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경기 킬처패스, 2.5만 → 6만원 한도 상향

지원 분야에 ‘도서’ 추가

경기도가 ‘경기 킬처패스’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를 기존 2만5000원에서 최대 6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분야에 ‘도서’를 새롭게 추가한다. 오는 26일부터는 지역 제한 없이 CGV·롯데시네마, 교보문고 등 온라인 제휴처에서도 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경기 킬처패스는 영화·공연·전시·스포츠·숙박·액티비티·도서 등 다양한 문

화 콘텐츠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 문화소비쿠폰 사업이다.

개편에 따라 숙박은 3만원 할인 쿠폰 1종, 공연은 8000원·2만원 쿠폰 2종, 영화는 6000원·1만원 쿠폰 2종이 제공된다. 전시·스포츠·액티비티·도서 분야에는 각각 1만원 쿠폰이 지원된다. 쿠폰은 실제 결제 금액에 맞춰 선택 적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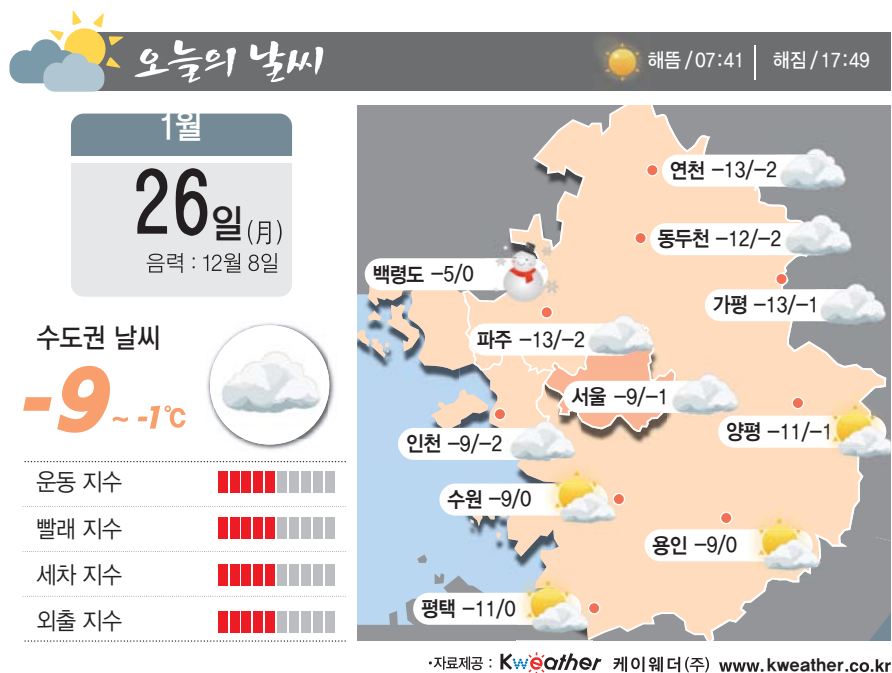
지원 분야는 기존 6개에서 도서를 포함한 7개로 확대됐으며, 사용처도 도내

시설 중심에서 전국 단위 온라인 제휴처까지 넓어졌다. 영화는 CGV·롯데시네마, 공연·전시는 티켓링크, 숙박·액티비티는 여기어때, 도서는 교보문고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킬처패스 쿠폰은 일일 발행 방식으로 1인당 하루 최대 3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발급 후 다음 달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전용 앱에서는 제휴사별 문화 정보와 추천 콘텐츠도 제공된다.

박래혁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개편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문화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여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 미니애폴리스 시에서 연방 이민 단속원들이 또 남성 1명 사살
▲ 트럼프 “캐나다, 중국과 협정 체결 시 모든 상품에 100% 관세”

▲ “美·EU 전후 우크라 재건 위해 1163조원 투자 유치 계획”
▲ 트럼프 “마두로 체포 때 新 무기 ‘디스컴버블레이터’로 적 무력화”



▲ “이란 시위 관련 사망자 5000명 넘어”
/사진 뉴시스
▲ 美·러·우크라 3자 회담 종료…“미해결 요소 논의”



오투기
케어푸드·해외사업
성장동력 모색
니

metro®

Life

국내제약
디지털 헬스와
손잡아
L2



“하루 15잔 마시며 연구… 맛있어서 찾는 커피가 목표였죠”



새벽을 여는 사람들

세븐일레븐
신 오 하 MD

편의점 4사 간 커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해 GS25는 대당 가격이 1300만원에 달하는 커피 머신을 전국 점포에 도입했고, CU는 커피 원두를 리뉴얼한 데 이어 배달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마트24는 성수 카페 감성을 더한 ‘성수310’ 브랜드를 론칭했다.

커피가 고객을 점포로 유인하고 다른 상품을 함께 집어드는 미끼 상품으로 효과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 이에 맞춰 세븐일레븐도 출사표를 던졌다. 올해 초 자체 원두커피 브랜드 ‘세븐카페’ 원두와 컵을 전면 리뉴얼하며 ‘올 뉴 세븐카페’를 선보인다.

이번 대규모 리뉴얼에 함께한 세븐일레븐 신오하 즉석식품팀 MD를 만나 1년간 치열했던 개발 과정 속 이야기를 들었다. 신 MD는 2021년 5월 세븐일레븐에 입사해 2023년 5월 MD로 즉석식품팀에 발령됐고, 2024년 12월부터 세븐카페를 맡아오고 있다.



세븐일레븐 ‘세븐카페’ 전면 리뉴얼을 담당한 신오하 즉석식품팀 MD.

/세븐일레븐



‘세븐카페’만의 추출방식인 드립 방식.

을 주로 사용하는 것과 달리, 세븐일레븐은 종이 필터를 사용하는 드립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에스프레소 방식은 빠르고 진하지만, 자칫하면 탄 맛이 나거나 커피의 유분 때문에 뒷맛이 텁텁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븐카페의 드립 방식은 종이 필터가 기름기와 미세한 가루를 걸러내줍니다. 식후에 마셔도 입안이 개운하고 깔끔한 것이 최대 강점이지요.”

드립 방식 특유의 부드러움을 유지하면서도, 자칫 맛이 연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6종 원두를 촘촘하게 블렌딩해 풍미를 짙게 채운 것이다.

◆디자인부터 ‘꿀조합’… “맛으로 승부하는 커피”

맛뿐만 아니라 외형도 과감하게 변신했다. 기존의 크라프트색 컵이 중후하지만 다소 무겁고 올드하다는 평을 반영해, 세븐일레븐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색상인 초록색과 주황색을 컵 전면에 입혔다.

신 MD는 “멀리서 고객이 컵을 들고 가는 모습만 봐도 ‘아, 저거 세븐일레븐 커피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시각적 정체성을 강화했다”며 “실제로 현장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디자인이 합해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하루에도 십수 잔의 커피를 마시며 연구해 온 신 MD가 추천하는 세븐카페 최고의 조합은 ‘세븐셀렉트 버터 도넛’이다.

“리뉴얼된 따뜻한 아메리카노의 묵직한 고소함이 버터 도넛의 달콤하고 기름진 풍미와 만났을 때, 서로의 맛을 해치지 않고 기가 막힌 조화를 이룹니다. 꼭 한번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신 MD는 이번 리뉴얼이 단순한 상품 개선을 넘어 편의점 커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포부를 밝혔다.

“세븐카페가 단순히 가까워서, 혹은 가격이 싸서 마시는 ‘가성비 커피’에 머무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말 커피가 맛있어서 일부러 찾아오는 곳’이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리뉴얼 후 매출이 오르고 있어 매우 고무적입니다. 앞으로도 책상 위가 아닌 현장의 데이터와 고객의 목소리를 믿고 더 좋은 커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롯데 3사의 의기투합… 1년간 ‘커피 끝장 토론’

“보통 편의점 PB상품은 기획자가 콘셉트를 정해 발주하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는 일념으로 세븐일레븐, 롯데중앙연구소, 롯데웰푸드 3사가 연합해 ‘팀 MD’를 구축했죠.”

단순히 책상 위에서 펜대만 돌리는 기획이 아니었다. 1년간 팀장급을 포함한 8명의 핵심 인력이 서울 마곡에 위치한 롯데중앙연구소에 모였다. 수없이 많은 원두를 볶고, 내리고, 마시는 로스팅 테스트가 반복됐다.

최적의 원두 조합을 찾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가장 큰 난관은 맛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연구원들은 스페셜티 커피 트렌드에 맞춰 산미가 살아있는 고급스러운 배합을 추천했지만, 매일 고객을 만나는 신 MD의 생각은 달랐다. 편의점 커피는 매일 마시는 커피인 만큼 편안하게 마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호불호가 갈리는 산미 보단 고소한 맛이 정답이라고 판단했다.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선택한 건 ‘데이터’였다. 진짜 돈을 쓰는 고객들에게 물어보라고 제안했고,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100명을 대상으로 한 블라인드 시음 테스트 결과 소비자들은 산미보다 ‘묵직한 고소함’을 선호했다. 객관적인



편의점 PB상품 ‘세븐카페’ 리뉴얼 맞아 롯데 3사 연합해… 1년간 로스팅 연구 고객 설문조사·블라인드 테스트 등 객관적 데이터로 호불호 없는 맛 찾아

6가지 원두로 바디감·단맛·향 다 잡아 종이필터 드립방식으로 개운함 살려 마진↓, 품질↑… 1000원대 가격 확보 초록·주황색 컵으로 시각적 정체성↑ 편의점 커피 인식 올리는 계기 될 것

메트로  한줄뉴스

▲이민성호 꺾은 일본, 중국 대파하고 U-23 아시안컵 2연패

▲‘삼성, 2026년 연봉 계약 완료…원태인, ’팀 내 최다 인상액’ 10억원

/사진 뉴스스

▲두산, 스프링캠프 돌입…김원형 감독 “개개인 목표가 팀 성적 좌우해”

▲다르빗슈 “계약 해지로 마음 기운 건 사실…은퇴 보도는 ‘성급’”

▲피아니스트 김강태, 리스트 위트레흐트 피아노콩쿠르 3위

▲김연수 “굿바이, 폴”…오스터 마지막 소설에 바친 작별 인사